

1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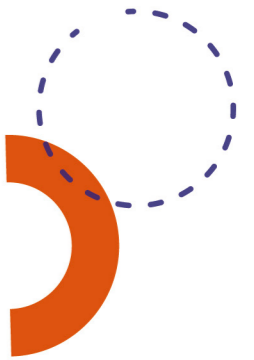
APA 5주년 백서

Asia Philanthropy Awards

의 기록



APA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 위원회



APA(Asia Philanthropy Awards)는
 아시아 지역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가치 실현에 헌신하는
 필란트로피스트를 찾아내어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Asia
 Philanthropy
 Awards**

APA

APA 5주년 백서

목차

위원장 인사말

APA를 만들다

- 09 | What is APA?
- 10 | 미션 / 비전 / 가치
- 11 | 시상부문 / 심사기준
- 12 | 심사위원회 / 공모와 심사
- 13 | 연혁 : APA 5년의 발자취
- 17 | 주요 성과

APA를 말하다

- 21 | 수상자들의 필란트로피 이야기
- 39 | APA를 함께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APA를 돌아보다

- 51 | 2015 APA
- 59 | 2016 APA
- 67 | 2017 APA
- 75 | 2018 APA
- 83 | 2019 APA

부록 포럼강연문

- 97 | 2018 포럼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 99 | 2018 포럼 나성식 전 스마일재단 이사장
- 101 | 2019 포럼 김영걸 KAIST 교수



필란트로피를 삶의 일부로 만드는 움직임, APA

김성수

대한성공회 주교
APA 조직위원회 위원장

2015년 비영리영역에 일하고 있는 100여명의 사람들이 APA를 처음 만들 때, '필란트로피'의 의미와 우리가 만들어 낼 변화를 정확히 알고 시작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필란트로피'는 너무나 큰 개념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필란트로피(philanthropy)!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필란트로피의 어원은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 바꾸어 보려는 시도를 많이 해봤지만 '나눔', '기부', '봉사' 라는 단어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열망과 '사회에 미치는 큰 영향력'을 다 품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란트로피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PA를 만들어가면서 다같이 필란트로피에 대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필란트로피는 아픔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웃이 아프면 내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아픔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이는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를 보고 하루 종일 마음 아파합니다. 어떤 이는 비닐을 삼키고 죽은 거북이의 사진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필란트로피는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주고 싶고, 내가 누린 교육의 기회를 다른 이에게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부도 하고, 기부해 줄 것을 청하기도 합니다.

필란트로피는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커져갑니다.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줄 때 그 효과는 더 크고 의미 있습니다.

이처럼 필란트로피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5년 동안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를 가꾸어 오면서 수상자들, 자원봉사자들, 조직위원들, 심사위원들, 후보자들, 축하객들...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APA는 거창해 보이는 필란트로피를 우리의 삶의 일부로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아파하고, 같이 하고, 기다려주는 것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필란트로피스트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APA를 만들다

- | What is APA?
- | 미션 / 비전 / 가치
- | 시상부문 / 심사기준
- | 심사위원회 / 공모와 심사
- | 연혁 : APA 5년의 발자취
- | 주요 성과

What is APA

What is Asia Philanthropy Awards?



A Asia

아시아에는 인류애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는 숨은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P Philanthropy

'필란트로피'는 고대 그리스어로 '사랑하다'는 뜻의 '필로(Philo)'와 '사람'을 의미하는 '엔트로피(Entrophy)'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다', 즉 인류애에 대한 사랑이 필란트로피입니다.

인류애를 근간으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원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하는 정신이 바로 필란트로피입니다.

필란트로피는 기부(Giving), 봉사(Serving), 참여(Joining), 기부와 참여를 요청(Asking)하는 것으로 자선보다 더 적극적이고 넓은 의미의 사회공헌 행위와 정신입니다.

A Awards

APA는 종교, 이념, 분야, 단체의 규모 등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아시아지역에서 필란트로피 정신을 실천하는 숨겨진 리더들을 찾아내 격려하는 상입니다. APA는 이런 시상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아시아의 개인 및 단체가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션 비전 가치

Mission

APA는 아시아에서 필란트로피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Vision

APA가 아시아 필란트로피스트들의 명예의 전당이 되고자 합니다.

APA의 5대 가치

- 
Independence
 - No government; No corporation; No individual influence
 - 정부와 기업, 또는 영향력 있는 개인의 후원 없이 비영리 활동가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 
Voluntary participation
 - 시민들과 비영리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 
Innovative approach
 -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추구합니다.
- 
Beyond discrimination
 - 인종, 정치, 종교, 이념을 초월하여 차별 없는 가치를 지향합니다.
- 
Fair and scientific process
 - 공정하고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선정합니다.

시상부문 심사기준

▶ 시상부문

APA 시상부문은 아래의 5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사회의 각 분야(환경, 인권, 보건, 복지, 자선, 문화, 예술, 과학, 경제 등)에서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공헌한 모든 개인과 단체가 대상이 됩니다.

□ 올해의 필란트로피스트 상 (The Philanthropist of the Year)

Asia Philanthropy Awards의 가장 영예로운 대상으로 탁월한 성과 창출, 혁신적인 노력, 수행과정의 신뢰성과 열정에 있어 가장 모범이 되는 필란트로피스트에게 시상합니다.

□ 올해의 펀드레이저 상 (The Best Fundraiser of the Year)

소속된 기관의 통상적인 모금 성과를 뛰어넘는 탁월한 성과, 투철한 윤리의식 및 협업,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보인 펀드레이저에게 시상합니다.

□ 올해의 NPO 상 (The Best NPO of the Year) (사회적 기업 포함)

비영리 법인,단체(사회적 기업 포함)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기존 인지도, 규모, 역사 등 외적인 조건에 의한 평가를 지양하고, 성과 및 수행 과정에서의 탁월함과 차별성을 통해 필란트로피 활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문화를 선도하는 법인, 단체에게 시상합니다.

□ 올해의 청소년 필란트로피스트 상 (Youth Philanthropist of the Year)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주위 청소년 및 어른들에게 필란트로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 일으킨 청소년 개인(2019년 기준 만 7-23세, 1996-2012년 출생자) 및 청소년에 의해 운영되는 동아리 등 단체에게 시상합니다.

□ 공적상 (Lifetime Achievement Award)

필란트로피 및 비영리분야 발전에 오랫동안 헌신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그간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여러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수행 과정에서 귀감이 되는 이에게 시상합니다.

□ 올해의 여성 필란트로피스트 상(Woman Philanthropist of the Year)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필란트로피 활동에 대해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였거나 모범 사례를 제시한 여성 활동가에게 시상합니다.

※ 올해의 여성 필란트로피스트 상은 2019년부터 올해의 필란트로피스트상과 통합됨

▶ 심사기준 (3P 5요소)

Asia Philanthropy Awards는 성과(Performance) 이외에도 수행 과정(Process)과 열정(Passion)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점으로 필란트로피 활동을 심사합니다. 평가의 중심 축인 3P(Performance, Process, Passion)는 총 5가지 요소로 세분화됩니다.

구분	기준	설명
Performance	공헌성	조직 역량 강화 및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로 정착시킴
	혁신성	기존 방식의 답습을 넘어 창의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혁신적으로 성과를 창출함
Process	신뢰성	사용하는 자원의 조성 및 기부, 집행 등 전체과정에서 투명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함
	확장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활동을 연관 분야 및 다양한 범위로 확장시킴
Passion	지속성	일회적이거나 단기간 활동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평가

심사위원회 공모와 심사

▶ 100인 심사위원회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예술, 언론, 경영, 에드보커시, 법조계 등에 종사하는 비영리 영역별 전문가 100인들로 구성됩니다. APA에 추천된 후보자들을 심사하는 기구로서 과학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책임집니다.

▶ 공모 안내

공모 대상

- 아시아에서 또는 아시아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 개인은 해당 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성인
- 청소년 부문 후보는 해당 연도 기준, 만 13-24세

공모 방법

- APA 웹사이트에서 추천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Website : www.apawards.org
- E-mail : asiapaward@gmail.com

공모 기간 - 매년 9월 1일 ~ 12월 31일



▶ 공모 / 심사일정 (2019 APA)

- #### 1. 후보 공모 및 접수

 - 접수기간 2018년 9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 12월 31일 자정까지 도착한 전자메일에 한함
 - 이메일 접수 : asiapaward@gmail.com
- #### 2. 후보자 심사

 - 2019년 1월 1일 ~ 2019년 3월 30일
 - 심사위원회에서 1~5차의 단계별 심사과정을 거쳐 조직위원회에서 최종수상 후보자 선정
- #### 3. 수상자 발표

 - 2019년 4월 초
 - APA 홈페이지에 발표 (<http://apawards.org/>)
- #### 4. 시상식

 -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APA 5년의 발자취

2015 APA

2015. 1. 28

2015 APA 첫 공모



2015. 4. 9

김성수 위원장님과
조직위원 첫 만남



2015. 4. 22

2015 APA 시상식



2016 APA

2015. 6. 8

2016 APA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 회의

2015. 10. 30-31

APA 조직위 워크샵

2015. 11. 15

2016 APA 공모



2016. 1. 14

신년회 및
심사 오리엔테이션



2016. 4. 27

2016 APA 시상식



2017 APA

2016. 6. 15

2017 APA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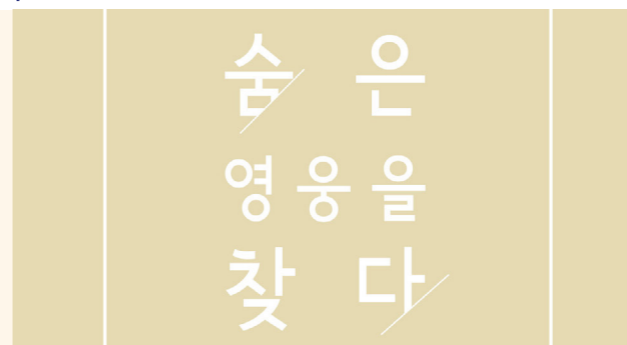
2016. 8. 11-13

힐링&성찰 워크샵
(행복공장 흥천수련원)



2016. 9. 21

2017 APA 공모



2017. 4.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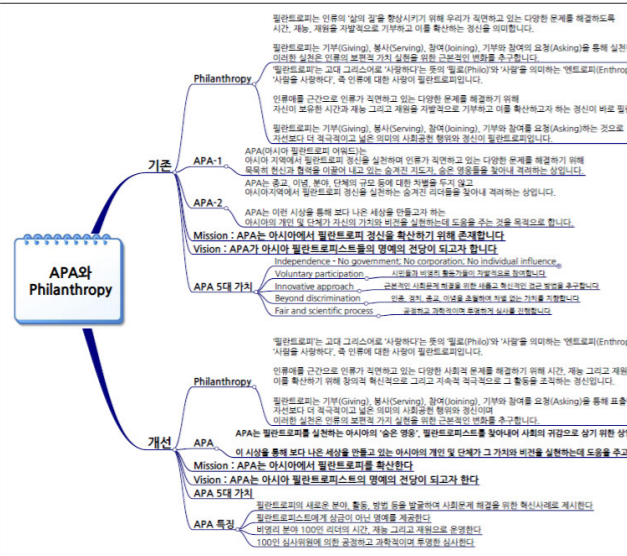
2017 APA 포럼 / 시상식



2018 APA

2017. 5. 25

전략 TFT 회의 총 3회차 진행, APA조직체계 및 발전전략 로드맵 논의



2017. 6. 29

2018 APA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 회의



2017. 9. 23

Vision Casting 워크샵

APA 조직위원 워크샵

- 일 시 : 2017. 9. 23(토) 오전10시~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강학봉, 김세훈, 박용주, 배원기, 백경학, 비케이안, 염진수, 윤정숙, 이상미, 이승훈, 이종수, 장 건, 전현숙, 조하정, 황신애
- 프로그램 순서
 - 10:00~10:30 도착 및 접수
 - 10:30~10:40 만나서 반갑습니다
 - 10:40~12:00 APA의 정체성, 미션 및 비전에 관하여
오찬 및 휴식
 - 12:00~13:00 [의정간 네트워크]
 - 13:00~14:00 -위원들의 소속 기관 및 활동 소개
-상호 협력하고 싶은 내용 소개 혹은 제안
 - 14:00~16:00 WHAT, APA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HOW, 사업추진 방법 및 조직운영은?
 - 16:00~17:00 2018 APA 조직구성
2018 APA 사업계획 및 예산안
 - 17:00~ 19:00 만찬

2017. 10. 23

2018 APA 공모

2018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
 <후보자 공모>

공모 내용 : 2018 ASIA PHILANTHROPY AWARDS 후보자

시상 부문
 - 올해의 필란트로피스트 (The Philanthropist of the Year)
 - 올해의 엔트로피 (The Best Entropy of the Year)
 - 올해의 기부 활동가 (The Best Philanthropist of the Year)
 - 올해의 사회적 기업 (The Best Social Enterprise of the Year)
 - 올해의 사회적 기업 (The Best Social Enterprise of the Year)

추진 기간 : 2017. 10. 23 ~ 11. 15

제출 서류
 후보 추천서 (후보자 추천서 및 추천서) (2017. 11. 15)

추진 대상
 아시아에서 10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100인 이상 20억 이상 자산 보유 기업
 100인 이상 20억 이상 자산 보유 기업

추진 방법
 APA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공모'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이메일 : asiapah@asipah.com

신청처 및 일정
 후원 기관 : 후원자 1위 : 후원자 2위 : 후원자 3위

문의 : APA 사무국
 홈페이지 : www.asiapah.com
 이메일 : asiapah@asipah.com

2018. 4. 25

2018 APA 포럼 / 시상식



2019 APA

2018. 6. 29

2019 APA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



2018. 9. 1

2019 APA 공모

누구나 사랑을 한다

Asia Philanthropy Awards 2019

2019 APA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 후보자 공모

그래서 필란트로피스트다
Share Your Philanthropy!

2018. 9. 21

2019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



2019. 4. 24

2019 APA 포럼 / 시상식

Asia Philanthropy Awards

APA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

ASIA PHILANTHROPY AWARDS

2019년 4월 24일 (수) 오후 2시
은행연립회 2층

문의 : APA 사무국
 홈페이지 : www.asiapah.com
 이메일 : asiapah@asipah.com

▶ 숫자로 보는 APA 5년

수상자

28명



2015년 6명의 첫 수상자 탄생을 시작으로, 5회에 걸쳐 총 28명의 소중한 필란트로피스트들을 찾아 세상에 소개하였습니다. 매년 새로운 수상자가 선정되고 발표될 때마다 뜨거운 감동과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후원자

5,921명



2015년 48명, 2016 58명, 2017년 42명, 2018년 27명, 2019년 5,746명(직접후원: 80명, 카카오 참여기부: 5,666명)이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카카오 같이가치 같이기부 모금함을 활용하여 응원과 댓글, 공유를 해 주신 참여기부자들이 많았습니다.

회의

51회



APA는 매년 새로운 시상식을 준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평균 월 1회의 조찬 모임을 가지며 차근차근 시상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51회의 만남이 있었기에 오늘의 APA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122명



비영리 영역의 리더, 전문가, 종사자로 구성된 '100인의 심사위원'은 APA를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이끌고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5년 동안 심사 뿐만 아니라 후보자 발굴, APA 운영, 후원 참여까지 122명의 귀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후원금

76,088,400원



5년 동안 5,921명의 정성으로 76,088,400원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후원금으로 5번의 시상식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재능기부 / 자원봉사자

97명



APA를 위해 드러나지 않는 수고를 해온 숨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로 노력해주신 91명의 개인과 6개의 기관입니다.

APA를 말하다

| 수상자들의 필란트로피 이야기

필란트로피스트 부문

Nomura Motoyuki

김도현

김하중

공적 부문

이동한

NPO 부문

승일희망재단

스마일재단

네팔 수카와티 재단

펀드레이저 부문

이광재

김이경

| APA를 함께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이종수

손미정

강학봉

박재홍

박용주

이경란

백경학

조하정

비케이안

2015년 필란트로피스트 부문 수상자

Nomura Motoyuki

1931년 교토시 Kyoto 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일본이 군국주의화하고 있었을 때부터 사회적 기독교 운동(social gospel movement)의 초기 운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때 일본에서는 불온한 인물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특별 고등경찰이 있었는데, 마치 한국의 박정희 군사 독재 정부의 KCIA(남산)과 같이 무서운 조직이었다. 일본 권력가에서는 부모님이 위험한 인물이었다.

전쟁중에도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도시샤 대학(Doshisha Univ.)과 시인 운동주와 친한 교제가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어머니에 이끌려 운동주의 시타쥬쿠에 갔던 적이 있었다.

내가 자란 교토 시내의 니시진 Nishijin 지구에는 조선인 하층 노동자 가족들이 대부분 이었다.

차별받고 박해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조선인 하층 노동자 가족과 그들을 조롱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일본인을 나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고, 'Something must be wrong!' 이라는 의식을 갖고 바라보았다.

조선인 여자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가지 않았다. 조선인 남자 아이 두 명이 나와 6년간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에 있었다. 그들이 차별받고 부당하게 취급되는 것을 보면서 어린 나 나름대로 의분을 느끼고 있었다.

도쿄 수의 축산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한국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년째가 되었다.

광주 근처 출신의 김옥남이라는 유학생이 재학중이었는데, 고향으로부터 송금이 끊어져 생활이 곤란하였다. 그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하숙집을 구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일본도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다.

배급미와 의료품을 김옥남과 나누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찾아 둘이 함께 살았다.

1953년~61년까지 나는 몹시 가난한 유학생으로서 미국에서 세 개의 신학교와 대학원에서 접시닢이를 하면서 다녔다. 유학 당시 나를 Jap 과 차별적인 용어로 불리며 모욕적인 취급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은 일본에서 목격한 한국인의 차별과 부당함에 대한 나의 어릴 적 체험과 겹쳐져 귀국 후에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인생을 보내야겠다고 결의했다.

APA를 말하다



그러한 목적으로 1968년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고, 1973년에는 가족 전원을 동반해 한국을 방문했다.

도시 산업 선교회의 소개로 청계천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자리에 제정구씨도 함께 있었다.

청계천 빈민촌을 위해 필요로 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도쿄도내의 주택지를 매각하였고 현재의 한촌 벽지의 원생림에서 살게 되었다.

미국의 신학교나 교회에서 배울 수 없었던 귀중한 인생을 사는 귀중한 방법을 한국의 청계천을 중심으로 그곳에 모여든 각지의 농어촌과 대도시에서 하층의 삶을 살아 온 사람들로 부터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부유했다.

연지동에 있는 여성 전도 봉사회 의 일부인 약자 구원 선교 봉사회 의 기초를 만들어, 매일 2천명의 미취학아동에게 20년간 급식을 주도록 도왔다. 이를 위해 혼자 독일로 건너가 독일 교회의 원조를 얻고, 급식과 유아 교육 시스템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던 것은 나에게 너무나 감사해야 할 봉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수상자들의 필란트로피 이야기

2017년 필란트로피스트 부문 수상자

김도현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유엔 아동권리 7조)

부모를 아는 것. 너무나 당연한 권리지만,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해외입양인'들이다.

**2017년 올해의 필란트로피스트에 선정된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는
2004년부터 해외 입양인들에게 이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

입양의 본질은 결국 '이별과 상실'

“스위스에서 한 해외입양인을 만났다. 입양 가정에서 사랑도 많이 받았고, 나름 성공도 거둔 사람이 불쑥 “입양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더라. 우물쭈물 하는데 자기는 “이별과 상실”이라고 생각한다더라. 우리들이 입양에 대해서 “사랑과 돌봄”을 얘기할 때, 사실 입양인들은 가장 처음 느꼈던 감정인 이별과 상실을 계속 안고 살아간다는 거다. 일상 속에서도, 인생 속에서도 일종의 분열이 있는 셈이다. 뿌리의 집은 입양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메꾸고자 부모님을 찾는 여정에 동행하고, 낯선 타지에서 그들에게 현대의 경험을 주는 역할을 한다.”

1년 동안 뿌리의 집을 거쳐가는 사람 수, 약 300명. 머문 날 약 3,000박. 그들이 머무는 날이면 김도현 목사 부부는 분주해진다. 따뜻한 아침을 챙겨주고, 그들이 머무는 공간을 깨끗이 정돈하는 것은 기본이다. 더 나아가 그들의 삶에 깃든 애환을 마음으로 함께하는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 가족 찾기 여정이나 국내에 다시 정착하려는 사람을 뒷바라지 해주는 일, 통역이나 번역, 한국사회나 문화에 대한 안내 등이 그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뿌리의 집에는 여러 사람들의 경험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

“하루는 입양인들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둘러앉았다. 그날 부모를 만나고 돌아온 입양인이 말하기 시작했다. “내 어머니는 나를 키우려고 일주일 동안 온 힘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날 입양 보낸 거래. 낳아준 어머니에게 너무 고마워. 그리고 오늘은 너무 좋은 날이야”라면서 평평우는 거다. 그 눈물로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는 거겠지.

그런데 다른 입양인은 부모님을 못 만났다. 부모가 자신을 만나는 걸 원치 않았거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무너진다. 버려짐을 당한 사람으로서의 비참이 떠오르는 거겠지. 이러면 계속 그 아픔을 가지고 살 수 밖에 없는 거다.”

시스템 앞에 고개 돌릴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

비단 입양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김 목사는 해외입양인 가족모임 '민들레회'가 조직되는 일을 뒷바라지하여 입양인들과 입양을 보낸 부모들과의 만남도 주선하고 있다. 선택권이 너무나 적었던 원가족의 아픔 또한 치유하기 위해서다.

김도현 목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외입양 문제를 다룰 때 아이를 버려졌다는 측면에서 바라봤다”며 “이제는 친엄마의 상황에서 포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에서도 바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양인이 '이별'이라는 경험을 했다면, 친엄마들은 무슨 경험을 했을 까에도 초점을 맞춰 볼 시점이라는 것이다.

“민들레회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아이를 한번도 안아보지도 못하고 입양을 보냈다는 엄마가 대부분이다. 양육이라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양육을 선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양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진정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의 결정, 선택, 욕구를 인정해주지도, 고려해주지도 않는 시스템인거다. 엄마의 의지나 진심은 물어보지도 않았던 거다. 올바른 사회시스템은 한 개인이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들은 지금까지도 엄마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이에 김 목사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기간을 보장해주자'는 흐름에서 아이를 낳고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함께 생활해 볼 수 있도록 입양 특례법 개정을 발의했다. 아이를 낳고 바로 입양을 보내는 것이 아닌, 한 달 동안 함께 생활해 보면서 자기 미래에 대한 의지와 자신의 자원을 점검해보고, 많은 상담을 통해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결국 법은 개정 됐지만, 한 달이 아닌 일주일로 결정된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APA를 말하다



결국 내가 설 자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김도현 목사에게 아시아 필란트로피 수상은 더욱 무거운 짐을 남겼다. 김도현 목사는 수상 당시 “아시아 필란트로피가 실수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풀어가야 할 과제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상을 받아도 되나? 싶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밥상부터 차린 꼴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에겐 아직도 주어진 일이 많이 있다. 해외로 입양 보내어지기 전, 아동이 그 나라의 시민권 발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을 개정했지만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도 다수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꿈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 뿌리의 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마더 테레사가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어머니가 됐는데, 사실 인도에 가난이라는 게 없었다면 그렇게 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을 베푸는 것 보다 더 중요한건 사랑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적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 전체가 좋아져서 사랑으로 돌보아야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 나의 꿈이다.”

김 목사는 사회를 사랑한다. 규범과 제도가 부드러운 사회. 규범, 제도와 법 속에 인간애가 깃들여 있는 사회. 김 목사는 '주변인의 보편성'으로 결국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오히려 주류사회가 편파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편파성을 교정하는 건, 결국 주변인으로부터 온다. 주변인의 보편성이 발현될 때 주류 사회의 편파성이 제거된다. 주류사회가 가진 힘의 불의성에 대해 말하는 것, 이 과정을 정의의 실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2018년 필란트로피스트 부문 수상자

김하종

“26년째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APA 상 받고 와서도 똑같이 일했다. 안나의 집 와서 식사 준비하고, 같이 밥 먹고, 뒷정리하고. ‘신부님 참 변함없이 살아왔다’는 얘기 듣고 싶다.”

아침 5시 기상, 아침 기도, 식사 준비, 뒷정리, 행정일, 오후 5시 아지트 활동. 그는 매일 반복 되는 자신의 일상을 “인간으로는 참 재미 없는 인생”이라고 평가했다. 오후 2시, 성남 안나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한참 급식소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신부의 상징인 사제복 대신 평상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 인생의 재미보다 찾기 힘든 인생의 ‘의미’가 담겨있는 듯 했다.

“사실 상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놀랐다. 나는 그냥 주방일 하는 사람이다. 전혀 훌륭하거나 특별하지 않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 주방에서 일한다. APA 수상은 저한테 어떤 증표 같았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이 생활이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도 많다. 가는 길이 맞다고 인정받은 기분이다. 예수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해주신 것 같다.’

다행히 후원도 많이 늘었다. 안나의 집은 정부보조금 40%, 후원금 60%으로 운영된다. APA 수상 이후 후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긴 덕분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후원금만으로 건물을 지었다. 곧 계약이 만료되는 안나의 집이 이사 갈 보금자리다.

원동력은 ‘목표’가 아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30살에 사제가 될 때까지 이탈리아에서 살았다. 학부 시절 동양철학을 배웠던 그에게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가톨릭 신자들이 생겼던 한국이란 나라는 꽤 매력적이었다. 그렇게 1991년, ‘달동네’였던 성남에 정착하게 됐다. 김 신부는 “달동네를 보는데,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라는 느낌이 왔다”고 상기했다.

그렇게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인 ‘평화의 집’을 운영했다. 저녁에는 공부도 가르쳤다. ‘영어를 가르쳐 달라’던 아이가 한 명, 두 명 늘어 1994년에는 분당 영구임대아파트에 아예 공부방도 열었다. 그러다 1997년 IMF가 터졌다.

“그때 노숙자들이 진짜 많았다. 근데 밥 주는 곳이 없었다. 독거노인 급식소는 원칙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밥 주긴 했다. 근데 전혀 인간답지 않았다. 냉면 그릇에 밥, 국, 반찬... 아저씨들 창피해서 벽 바라보면서 숨어서 먹고 그랬다. 앉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렇게 그는 6년 간 운영한 평화의 집을 정리하고 노숙인들을 위한 급식소인 ‘안나의 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결정이었다. 김 신부는 “정말 급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저 인간답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 결정에 목적은 없었다. 그저 위대한 존재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밖에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한다. 나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 예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랑하는 일, 그걸 실천하는 거다.”

APA를 말하다



받아봐야 줄 수 있다 ... 무엇이든

안나의 집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한 달에 한번 일찍 일어나 샌드위치와 우유를 챙겨 노숙인을 직접 방문하러 다녔다. ‘가출’이라는 단어도 몰랐던 때, 우연히 가출청소년을 만났다.

“1998년, 수지 지하상가에서 15살짜리 애들 3명을 만났어요. 밥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안 먹었다는 거다. 그래서 안나의 집에 밥먹으러 왔다. 처음엔 애들한테 밥을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어느 날 다 먹고 ‘잘가’라고 인사를 하는데,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다시 쫓고, 어둡고, 위험한 길로 돌아갈 거 아니냐.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자립관을 만들게 됐다.”

독거노인에서 노숙자를 위해, 노숙자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해. 이 모든 일은 계획한 게 아니었다. 김 신부는 “어려운 사람과 같이 울면서, 보고 느껴 시작한 일들”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그가 느낀 건 그저 ‘동정심’이 아니다. “사랑 받아 봤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고, 용서 받아 봤기 때문에 용서할 줄 안다. 나는 사랑도 많이 받아봤고, 많이 얻어서 교육도 받을 수 있었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다.” 김 신부는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필란트로피의 의미를 찾았던 것이다.

‘나부터’ 행동하는 것

“우리 인생은 매일 매일 살면서 만들어가는 거다. 내가 살면서, 노력하면서, 사람에게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매일이 바뀔 수 있는 거다. 매일 새로운 시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당장이라도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나는 북한에 갈 거다. 누군가 해주길 바라면 안 된다. 나부터 시작하라.”

수상자들의 필란트로피 이야기

2018 공적상 부문 수상자 이동한

Q :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을 운영하고 있는 이동한이다. 사회복지법인 춘강은 제주지역 최초의 장애인복지 전문법인으로서 1987년 설립되어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와 직업재활시설 2개소 재활의원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Q : 어떤 계기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첫 시작 하였는가?

나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중증의 장애를 갖게 되었다.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으로 7살이 돼서야 지팡이에 의지하여 첫걸음을 떼었고, 학창시절 대부분을 수술과 재활치료로 보내야 했다. 긴 재활치료 속에서 나 자신에게 던진 화두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어떻게 살지?”였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자 바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제주도 최초 계량기사가 되었고, 그 바탕으로 제주도 최초로 수도미터 계량기수리소 개업, 제주도 최초 조경건설업 면허로 지금까지 조경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는 보조기에 의지하고 지팡이를 짚어야 걸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지만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뛰었다.

내 사업에 자신감이 생기자 다른 장애인들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저들도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사회 참여하여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을 꿈꾸었다. 그 당시 제주지역에 등록 지체장애인이 3천여명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유복한 장애인 1,000명과 중증장애 혹은 학업의 길 등 직업재활을 선택하지 않을 장애인 1,000명을 제외한 1,000명의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큰 그림을 그렸다. 10개의 직종에서 10명의 장애인에게 기술을 가르친 후 제주지역 10개의 읍 면에 보내어 그곳에서 다시 장애인을 가르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돕는다면 제주지역 1,000명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에 성공하여 지역사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초석으로 춘강 장애인 근로 센터를 설립하였다.

춘강 장애인 근로 센터는 토지와 건축 그리고 기계장비 구입까지 모든 비용을 정부 지원 없이 제 사재로 충당하여 시작한 시설이다. 장애로 인한 아픔은 하나라고 생각했기에 정부의 지원이 없다고 마냥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내 삶의 화두가 ‘어떻게 살지?’였기에 장애인 과 그 부모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이 나의 평생 명제를 푸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법인은 직업재활, 의료재활, 사회재활의 전인적 서비스 체계를 갖춘 복지법인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Q : 남을 돕는 일에 활동기간이 오래되었다.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가장 큰 힘은 가족이다. 춘강을 설립하며 부지 6,800평과 건축비용으로 4억 상당의 현금을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금전적 출현을 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언제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해주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아내, 아버지의 결정이 옳다고 지지해주는 아이들에게 언제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직원들과 장애인들이 나의 힘의 원천이다. 저희 법인에는 30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들이 여럿 있다. 대부분이 십 년 이상 장기근속을 한다.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이다. 직업재활시설인 춘강 장애인 근로 센터에는 20년 이상 근무한 장애인분들이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다. 그분들이 장애를 극복하여 일을 배워 나가고, 집 장만을 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보는 기쁨이 내 힘의 원천이다.

Q : 사회 활동을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일화는 무엇인가?

제주도 장애인 종합 복지 관장을 겸직하고 있을 때였다. 부모 상담 중에 서귀포시 거주하시는 어머니의 하소연을 듣게 되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었더니 병신 자식 낳은 것도 모자라 발일 내팽개쳐 두고 아기 돌려 업고 복지관에만 가서 사니 집안 거덜 나게 생겼다며 시부모님이 역정을 내신다는 이야기였다. 한 시간의 치료를 위해 버스타고 먼 길을 돌아 오고 가느라 하루를 보내 셔야 한다며 서귀포에도 복지관을 지어 달라는 어머니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어릴 적 내 모친의 눈물이 떠올라 노력하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APA를 말하다



결국 1997년 IMF가 시작되자, 더 미루면 기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될지 모른다는 우리 가족의 합의로 토지를 2,000평 구매하여 서귀포복지관 건립 조건으로 1,000평을 서귀포시에 무상 증여하고 그 옆에 직업재활시설을 개원하여 장애인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던 일이 떠오른다. 그때, 직원들이 사업도 어려운데 어떻게 버티려고 하느냐며 만류도 많이 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용기를 낸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Q : APA 수상 이후 변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APA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던 것은 이 상이 비영리활동가 100인이 모여 준 상이라는 점이였다. 나에게 가족이 있고 함께 해준 직원들과 장애인 가족들이 있었지만, 사회복지의 길은 언제나 외로운 길이었다. 수상식장에서 많은 분을 뵈며, 좋은 벗들이 많아졌다는 든든함을 느끼곤 했다.

지금은 함께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비영리 활동가분들을 지지해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많아졌다.

Q : APA는 어떤 의미 인가?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이다. 하지만 나 자신이 현장 활동가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나와 같이 장애를 가진 분들과 함께 건강한 미래를 향하여 사회 속으로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 나에게 APA 수상은 그 사명을 알고 끝까지 현장 활동가로 제 자리를 지켜내야겠다는 굳센 다짐의 디딤돌이 되었다.

Q : 마지막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한글을 어머니한테서 배웠는데, 불심이 돈독한 어머니 영향으로 글을 깨치고 처음 읽은 글이 회심곡이었다. 어릴 적,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겠지만 그 구절구절들이 제 머리 속에 새겨져 있는 것 같다. 태어난 것이 부처님의 은덕이고 부모님의 은혜라는 글귀는 중증장애의 몸이지만 나 자신을 폄하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늘 감사함을 품게 하였고, 효와 가족사랑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도와주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은 온전히 내 삶에 채색되었다. 무엇보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셨던 어머니의 삶을 지켜보며 자랐기에, 어머니의 교육 철학이었던 ‘항상 남을 기쁘고 이롭게 하는 일을 하자’는 나의 신념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은 물론 개인 사업을 하면서도 행함의 기준점이 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의 하루하루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와 뒤돌아보니 국가와 모든 분께 감사할 뿐이다. 여러분의 오늘도 힘드시길 거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처하더라도 비관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라. 작은 것에 항상 감사하고 극기의 노력을 가한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혹여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사와 노력만으로도 여러분은 어느새 APA 수상자이다. 감사합니다.

2016 NPO 부문 수상자

승일희망재단

APA를 말하다

승일희망재단과 루게릭병

*루게릭병-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난치성 희귀질환

국내 최연소 프로농구 박승일 코치에게 찾아온 루게릭병. 난치성 희귀질환이 운동을 업으로 하는 그에게 찾아왔다. 전신은 움직이지 못하나 정신은 말짱하게 남게 되었다. 전에 가지고 있던 삶에 대한 기대는 버려야 했다. 포기하는데 익숙한 삶이었지만, 그는 작은 병실에서 꿈을 꾸었다. 그의 꿈을 함께 응원하기로 한 그 순간이 승일희망재단의 시작이다.

스스로 말할 수도, 숨 쉴 수도,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수 없다. "그래도 난 살아있다."

2011년에 설립된 승일희망재단은 루게릭병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간병할 수 있는 루게릭 요양 병원 건립이 최우선 목표다. 또한 루게릭병 환우와 가족들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련 속에 찾아오는 선물, 아이스버킷 챌린지

"재단 운영의 대한 지식을 전혀 모른 채 시작했다. 꿈과 열정으로 시작한 것이다. 현실의 벽을 마주한 순간마다 선물이 나에게 찾아왔다. 릴레이 기부 캠페인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저에게 선물 같았다. 찬 얼음 물을 한 번에 쏟아붓고 3명의 지인에게 지목하는 SNS 캠페인을 선 대표님 1명의 시작으로 유명 스타들이 함께 참여해주었다. 결국 2018년 9월 15일, 918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도 할 수 있었다. 기적과 희망이 저에게 조금씩 다가오는 일이 된 것 같았다."

삶이 지속되는 한 희망은 있으니 마음까지 닫지 마라, 삶이 아무리 불행한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 스티븐 호킹(Stephen William Hawking) 박사 -

승일희망재단 로고는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캠페인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기념하며 항상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제작되었다. 나선형의 선은 물이 쏟아지는 순간으로 아이스버킷을 뒤집어쓴 사람의 모습을 상징한다. 동시에 어깨동무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며, 이는 마음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표현이다.

희망의 끈을 이어갑니다.

"재단 직원들의 평균 나이는 30대 초이다. SNS으로 활발히 많은 후원자 및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과 소통하고 있다. 젊은 직원들이 힘써준 결과인 듯 하다. 기부상품을 판매하는 승일희망재단 기부상품 공식 쇼핑몰 '워드 아이스'도 젊은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SNS의 게시 글에도 내가 소소히 소통하려 하는데 종종 젊은 직원이 글귀를 고쳐 주곤 한다."



든든한 지원군과의 동행 2016 APA 올해의 NPO 수상

"수상 받는 2015년, 2016년에는 승일희망재단이 알려지지 않을 시기였다. 추천을 받고 수상이 되었다는 소식에 재단의 활동을 자세히 알고 계신 분께 놀랐다. APA의 많은 전문 심사위원의 참여와 공정성에 두 번 놀라게 했다. 나에게 선물같이 다가왔다. 그리고 상금이 없어서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상을 받고 난 이후 승일희망재단을 이야기할 때 APA 수상 이야기는 빠지 않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전문가의 평가와 공정성이 승일희망재단에 증명되는 수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수상의 기준이 승일희망재단의 기준이 되어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고,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어느 활동을 할 때마다 든든한 느낌을 받곤 한다. 작은 재단에 큰 힘이 된 APA 수상, 앞으로의 APA 활동에도 응원할 것이다."

Dreamer. 꿈꾸는 사람들

작은 병실에서의 꿈, 그 꿈은 작은 꿈이 아니었다. 루게릭병 환우와 가족들을 위한 병원 건립의 꿈을 이야기하고 응원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꿈은 너무 커서 가능할까 하는 작은 마음이 있었다. 혼자 생각이 아닌 함께 모여 여럿이 모두의 꿈이 되었다. 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를 구입했다. 사용하는 환우, 가족, 간병인 모두가 편히 이동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했다. 아직 병원 건립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꾸준히 함께 이루어 가길 희망한다.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기쁨이 공존하는 공간을 건립하는 것, 존재만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병원을 희망하고 있다.

운동신경세포가 마비되는 루게릭병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 불가능한 것들은 점점 많아진다. 하지만 생각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힘만으로도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희망을 품은 승일희망재단. 그 희망을 응원하고 실현될 수 있기 위해 승일희망재단이 존재한다. 2016년 올해의 NPO 상을 수여받은 승일희망재단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2018년 NPO 부문 수상자 네팔 수카와티 재단

2018 NPO 부문 수상자인 네팔 Sukhawati 재단의 Chijman Gurung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Q : 네팔의 Sukhawati 재단 창립 동기 및 목적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아름다운재단에서 기증받은 물품들을 팔아 자선기금을 모으는 매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곳은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이상적인 사회적 기업이었다. 그 덕분에 2012년 모국 네팔로 돌아왔을 때 저의 고국에서 그와 같은 곳을 창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옷 같은 것도 네팔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나는 옷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절에 맞는 의류를 제공하는 것은 더위와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인류에게 커다란 봉사이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옷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명목상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면 받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나는 팀원들과 제가 가진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의류 및 사용하지 않은 새 상품의 물품을 기부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자선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처음에는 거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는 이사회 멤버 중 한 곳의 차고에서 판매 상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우리 고객들은 우리에게 정식 판매 매장을 설립하는 것을 권장해주었고 고생 끝에 우리는 매장을 차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몇 시간 만에 팔십 달러 가치의 여러 상품들을 팔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되었다. 현재 Samakhoshi에 우리 매장이 위치해있으며 카트만두는 여러 시련의 단계를 거쳐 저희 매장을 차릴 수 있게 되었다.

Q : Sukhawati 재단에서 진행 중인 주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Sukhawati 재단에는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가 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한 프로젝트이며 다른 하나는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생계와 관련한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Dakshinkali Municipality-9의 Talkhu와 Gorkha의 Thalagung Village에서 "Namaste Agriculture Project"라는 농업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야채 및 농작물을 홍보하여 수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 사회 사람들의 영양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그 지역 여성 단체 및 협동조합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프로젝트 수행해 왔다. Sukhawati 재단은 채소 재배, 양수 관개 지원, 통합 해충 관리, 폐기물 관리, 수자원 관리 훈련 및 식물 특정 훈련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현재 약 250명의 여성이 생계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판매 매장의 경우, 3명의 직원 및 4 명의 자원 봉사자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의류 및 제품을 제외한 재사용이 가능한 모든 연령대 및 성별의 물품을 판매한다. 매년 우리는 약 4000달러 가치의 2톤의 재사용이 가능한 옷을 판매한다. 이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월 100-150달러의 수입으로 기본적인 생활물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과 가정용품 을 제공한다.

APA를 말하다



Q : Sukhawati 재단은 어떻게 독특한 사회적 기업이 되었는지?

농업과 관련하여 우리는 토착 기술 및 제품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 및 협동조합과 협업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네팔의 농촌 지역 여성 단체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Sukhawati 재단의 의류 매장에서는 루피 10에서 250 사이의 가격대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이를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쉽게 매장에 와서 옷을 구입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자원 봉사자가 중심이 되는 단체이며 네팔 카트만두의 어린이 및 노인 대피소에 현금과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다.

Q :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에서의 수상은 Sukhawati 재단 및 재단 회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이런 권위 있는 상을 수여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이 상은 네팔 내외의 사람들과 조직들의 규모 및 영역을 확대 시키게 해주었다. 또한 회원, 직원 및 자원 봉사자가 활발히 봉사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 해주었다.

Q :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네팔에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 사기업 및 사회적 기업 모두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정책이 적용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 측으로부터 이끌어 와야 할 등록, 세금, 감사, 갱신 및 감독에 관한 여러 극복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Q : 어떻게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에 대해 알게 되셨나요?

A): 2015년 네팔의 지진 피해자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저희 재단을 본 한국인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2018년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에 지원하기를 것을 권유했다.

Q : Sukhawati 재단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빈곤 퇴치를 위한 시범 사업이다. 우리의 계획과 영향력을 유지할 협동조합 및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 재단이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최소 비용으로 네팔의 다른 지역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

향후에는, 네팔 전역에서도 유명한 대부분의 농산품을 공급하는 Sukhawati 매장을 만들고 싶다. 또한 네팔에서 이상적인 사회적 기업으로서 더 전문화되기를 원한다.

Q :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지?

네팔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저희 Sukhawati 재단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수상자들의 필란트로피 이야기

2017년 NPO 부문 수상자

스마일 재단

이 재단의 가장 큰 목적은 장애인 중 치료비가 부족해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보철 치료비 지원이었다. 현재는 이동치과 진료 서비스 지원과 예방 교육도 함께 하고 있다.

2월 22일 스마일재단의 시작

1년 365일 중 숫자 2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날, 치아의 날이라고 해도 될까?
2003년 2월 22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스마일재단은 시작되었다.

- 김건일 이사장

비장애인들도 병원 중 치과를 특히 무서워하는 성향이 있다. 장애인은 더욱 더 심하게 무서워한다. 장애인에게 치과 치료는 시간은 2배로 들어가고 노력은 3배 더 들어가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치과에 가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와주고자 하는 게 저희 스마일재단의 작은 마음이다.

치과의사 10명이 모여서 시작해서 16년째 활동한 스마일 재단.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나성식 명예 이사장

어느 날 정기기부 5천 원이 등록되었다. 감사 인사를 드리며 후원 참여 사유의 대하여 문의해보니, 사실은 지원받으신 저소득 장애인 분이셨다. 내가 이렇게 지원받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후원해주는 것이라고 답변 주시는데 작게나마 눈물이 나오더라.

작은 회의실 한편에 빼곡히 쌓인 서류

- 나성식 명예 이사장

보철 치료 지원 신청서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아두고 있다. 100개의 지원서가 들어오면 90개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모든 분들을 지원 드리지 못하여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소중한 써주신 지원서인데 왜 못 받으셨는지조차 답변을 드리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모두 모아두고 문의가 있으면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고 있다.

- 김건일 이사장

사회에서 근무도 하고 재단도 운영하는 일은 체력적으로 힘겨운 일이다. 그러나 더 힘든 건 모든 분들 게 지원해드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마음이 아파 더 이상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이사님들께 안내드렸다.

- 김민경 팀장

기금 지원 사업은 1차와 2차가 있다. 1차에 선발되었으나 거부 및 연락이 닿지 않으면 2차로 넘어간다. 2차에 선정되신 분께 연락드리니 그 사이 돌아가신 분이 계셨다. 조금 더 일찍 지원에 연락을 드렸다면 건강이 유지가 되어 조금은 웃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했다. 짧은 6개월의 기간이다. 작은 지원 사업이나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일하고 있다. 지원 받으신 많은 분들이 종종 감사 인사 전화를 주신다.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고기, 김치를 이제는 아삭아삭 드실 수 있다는 환영의 소식을 한통 주시면 더욱 더 힘이 나곤 한다.

APA를 말하다



APA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나성식 명예이사장

APA 수상은 우리에게 있어 명예를 받은 듯 했다. 상금이 없는 시상식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다. 자연스럽게 명예를 알리고, 떳떳하게 지원 사업 안내하며, 모금 요청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기금 모금이 증진하게 되었다. 기금 모금이 되었다는 것은 지원 사업이 증가하며 저소득의 장애인이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우리의 꿈이 한 뼘 자란 일이다. 수치상으로 나와있진 않지만 APA 수상은 내부적 동기 부여와 외부적 모금에 긍정적인 영향에 한 발 도움을 주었다.

스마일이 여는 세상

한국 장애인의 치과 첫 방문 나이는 14.7세, 옆 작은 나라 일본의 경우는 1.8세입니다. 간단한 조사를 봐도 한국 장애인의 치과 치료 상황을 알 수 있다. 첫째로는 장애인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하며, 두 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치과가 없다는 것이다. 두 가지의 불편함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어린 장애인들이 뛰어놀며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 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공간에 있는 병원, 비 장애인들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병원을 장애인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

모두가 함께하는 스마일재단

매월 1회 스마일재단 소식지가 발송된다. 혼자 힘의 힘이 아닌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 제작하는 소식지. 소식지의 가치는 천만 원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성식 명예이사장. "그들의 마음과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천만 원 그 이상의 가치가 아닐까?" 그들이 있는 곳에는 그들이 만든 스마일이 있다.

2015년 펀드레이저 부문 수상자

이광재

Q :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1 회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에서 올해의 펀드레이저상을 받았던 사회복지사 이광재이다. 당시에는 아픈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한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에서 상임이사 일하고 있다.

Q : 어떤 계기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첫 시작 하였는가?

유년 시절에 누군가를 돕는 것이 참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늘 베푸는 삶을 살고 싶었던 나는 청소년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학력고사를 100일정도 앞두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검증하고 싶었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확신을 갖게 되어 졸업과 함께 모금을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작하게 되었다.

Q : 남을 돕는 필드에서 활동한 기간이 오래되었다.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20년이 조금 넘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왔던 일들은 전혀 특별한 것이 없었다. 단지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짐을 들어드리는 일 그리고 길을 잃으신 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일과 같이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을 할 뿐이다. 기부 역시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제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현장에서 일할 수 있었던 힘을 생각해본다면, 끊임없이 우리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필요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보면 내가 알지 못하던 많은 분들이 자신의 필요처럼 나와 함께 해 주고 있었다. 그러한 많은 만남들을 갖다 보니 벌써 2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다. 돌이켜보면 자신의 일처럼 나누어 준 많은 분들과 그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지금처럼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Q : APA 수상 이후 변화한 것이 있다면?

벌써 5회라고 하니 상을 받은 후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제 삶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우선, 제가 상을 받는 날, 현장 학습을 내고 시상식에 함께했던 초등학생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저의 일터도 바뀌었다. 또한 현장에서 늘 궁금해하던 비영리단체의 광고 메시지의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

그러나 내가 가장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일을 처음 시작했던 첫 마음’을 기억하게 되었고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 년간 좋은 의도와 큰 성과를 내기도 현장을 떠나는 많은 분들을 봤다. 하지만 APA 상이 저에게 첫 마음을 간직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였고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치기 쉬운 현장에서 처음주신 마음으로 지금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APA를 말하다



Q : 이광재 수상자님께 APA란?

어린 시절 비를 맞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께서 따뜻한 말씀과 함께 마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던 기억이 있다. 저에게 APA는 조금 혼란스럽고 지쳐갈 때 “지금까지 아주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꺼야.” 라는 따뜻한 격려였다.

Q : 마지막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필란트로피스트 한 사람을 격려하는 일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만나게 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의 변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해마다 APA를 통해 세워지는 필란트로피스트들은 수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은 또 다른 나눔의 기적들을 만들어 갈 것이라 생각한다.

APA에서 하는 일들이 단순한 시상식이 아닌 매해 수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일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멋진 상을 주신 APA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감사합니다.

2018년 펀드레이저 부문 수상자

김이경

Q :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월드비전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후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이경 차장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월드비전에서 17년간 근무를 하고 있다. 사랑의 빵 동전모으기, 기아체험24시간, 사랑의 동전발, 사랑의 빵 나눔 단말기 등의 모금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 어떤 계기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첫 시작 하였는가?

처음에는 막연한 생각으로 좋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전공을 사회복지학으로 선택했다.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위한 준비를 했으나 우연한 기회에 월드비전의 후원개발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사회복지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후원개발 업무를 하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기한 경험으로 가득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적성에 맞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다.

Q : 남을 돕는 일에 활동기간이 오래되었다,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꾸준한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변화를 경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들 듯 삶 속에서 나눔의 소중함을 인정하며 아름답게 변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감동은 그 어떤 것 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으로 선물처럼 힘을 주곤 한다.

Q : 사회 활동을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일화는 무엇인가?

몇 년 전 여러 사회복지법인의 담당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한 분이 저를 알아 보시고 반갑게 인사를 했다. 그러나 저는 그 분이 누군지 전혀 기억이 없었는데 그분의 말이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행사에서 차장님의 강연을 듣고, 행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아 복수전공으로 사회복지학을 배웠고 지금은 이렇게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내가 경험한 것을 알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의 필요를 다양한 기획을 통해 펼치는 과정에서 누군가 우리들과 함께 공감하고 동참한다는 것이 기적과 같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여러 구석구석에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큰 감동으로 다가 오는 일화이다.

APA를 말하다



Q : APA 수상 이후 변화한 것이 있다면?

자신감이 더욱 충만해 졌다. 지금까지 인정과 보상을 받기 일한 적은 없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도 못한 APA 수상은 저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과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는 메시지와도 같다. 그래서 수상 이후에 더욱 많은 새로운 기부문화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와 도전을 이전 보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Q : APA 는 어떤 의미인가?

새로운 도전을 꿈 꿀 수 있게 도와준 선물이다. 자칫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일들에 안주하며 어느 정도 만족하며 지낼 수 있었던 저에게 머물지 말고 새롭게 도전하라고 응원해 주는 인생의 소중한 선물과 같았다.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기에 감격하며 감사했던 지난 시간들도 다시금 생각나게 해 주었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도 했다. 정말 인생에 있어 최고의 선물이다.

Q : 마지막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살아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정말 귀하고 보석 같은 헌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 수 많은 동역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동역자들로 인해 우리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외롭다 느낄 수 있으나 언제나처럼 사명 앞에서 넉넉히 이기며 전진하는 그 모습을 함께 걸으며 응원할 것이다. 사랑한다.

APA를 함께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APA를 함께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놀라운 풀뿌리의 힘

이종수

IFK 임팩트금융 대표
APA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심사위원장



시작은 미미했다.

어렵고 힘든 사회. 사회가 신음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칭찬해 주면 어떨까? 거액의 포상금을 주거나 거창하게 띄우기 보다는, 진심을 담아서 격려하자.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사회가 인정해주는 상을 만들자. 아시아까지 범위를 넓히면 어떨까? 아시아 지역에서 일하는 숨은 봉사자를 찾아내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시작한 APA.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조그맣게 시작하였다.

놀라웠다.

시민사회가 나서서 발굴하고, 돈이 중심이 되지 않는 상.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심사하여 선정하고, 필요한 재원은 참여하는 100명의 심사위원과 활동가들이 십시일반으로 출연하였다. 재원은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졌고 행사 후에 항상 여유롭게 남았다. 자원봉사자가 모여 들었다. 운영을 논의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희망이 넘쳤다. 이제 해외로까지 알려져 다섯 번째 맞이하는 올해에는 5개의 시상분야 중 2개 부문이 해외인사로 채워졌다.

창대할 것이다.

풀뿌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준 것이다. 크지 않아도, 거액의 포상금이 없어도,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진정을 담은 시민사회의 연대가 이루어낸 조그마한 실험은 계속되면서 발전할 것이다. 하방연대의 물은 흘러 내려 가면서 주변을 정화시키고 세상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다.

APA를 함께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APA 5주년 즈음하여

강학봉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APA 조직위원회 위원

뜻을 같이하는 여럿이 모여 뭔가를 해보자는 단체, 법인들이 무수하다. 친목, 동창, 향우회, OB모임 등은 소속이라는 굴레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NPO나 NGO처럼 목적의식을 같이하는 집합체가 있다. 결국 혼자서 할 수 없는 사회적 병폐나 문제들을 뭉쳐서 이슈화 하고, 연대하면서 성과를 이루어가는 사회적 근본이 아닌가 한다.

국가나 지방정부 또는 기업들이 근사하고 많은 상금을 내걸고 칭찬해주면서 또한 자기 자랑에 폭 도취하곤 한다. 그런데 상도 받는 사람, 받는 단체가 돌아가면서 독식하는 형태를 많이 봐 왔다.

진짜 오른손이 한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찾아 널리 알리고 칭찬해 드리자는 뜻 하나로 출발함에 기꺼이 수저 하나 없어 동행해 왔다. 누구 한 사람 불평 없이 스스로 지갑을 열었고, 새벽에 만나 논의하고 일터로 가면서도 서로 격려하며 각자의 몫을 훌륭히 해내는 것에 감동을 받곤 했다. 본업과는 다르고 새롭지만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면 무척 힘이 드는 일이다. 대학시절 야학을 오래 하면서 느낀 감정이 되살아나서 그래 5년만 버티고 해보자 라는 오기도 발동하였다. "100인의 심사위원, 상금이 없는 포상, 현장 전문가들이 주는 사회적 가치". 누가 이상을 받고 싶어 할까 하는 의구심도 컸다. 그렇게 다섯 해를 넘기는 시점에 느끼는 감정이 미묘하다. - 다른 어떤 상 보다 APA를 수상하는 것이 더 명예스럽다는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아마도 시간이 문제지 꼭 그날이 오리란 상상으로 달려 온 것 같다. -

이제 기본적인 틀은 갖췄다.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몫은 이후 스텝들에게 넘기면서 응원하는 자리로 돌아왔다. 한두 해가 지나면 고향 제주에서 100인의 심사위원이든, 후원하는 후원자로든 제3자 입장에서든지 한발 더 물러서서 APA의 성장을 지켜볼 것이다.

정신적 지주이신 김성수 주교님을 비롯한 동행자들이 떠오른다. 생이 다할 때 까지 온 정성을 다해 만날 벗이기를 소원한다. 모두가 분야에서 존경받고 따르는 이들이 많은 벗님들이다. 지금은 이름 석 자만 들어도 알아주는 명사들도 이에 동참하시어 무한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한다.

딱히 주인은 없지만 모두가 주인인 APA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우리가 흔적을 남기고 간다.
후에 이거 하나면 잘 놀다 가는 생이 아닐까 하며 가벼운 미소를 짓고 싶다.

APA를 함께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동행

박용주

(주)지비스타일 대표이사
APA 심사위원회 공적상 부문 위원장

함께 바라는 것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함께 기뻐하고 행복감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아닐까?

가난한 유년시절 기울어진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장사판에 뛰어들었다. 셀 수 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고비들을 넘기면서 새까만 머리 청년은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 되었다. 비전을 갖고 실천에 게을리하지 않은 탓에 제법 잘 키운 기업의 경영자가 되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내게 온 성공의 결과들은 결코 내 자신에게서만 온전히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안다.

뺏속까지 기업인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비즈니스 현장은 내게 나눔의 기쁨, 감사의 위대함 그리고 작은 사랑의 실천이 가져오는 뜻밖의 행운의 힘을 가르쳐준 최고의 학습장이었다. 성공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서울로 상경한 그 때도 나는 결코 혼자 아니었다. 평생 동안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필란트로피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신이다.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해서 결코 필란트로피와 무관할 수 없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성과를 내야하는 비즈니스영역이야말로 필란트로피 정신과 실천이 가장 필요한 영역일지 모른다. 리더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은 신념 이상의 큰 성과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 속해 있건 그 곳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필란트로피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다.

APA가 태어나 5돌을 맞을 때까지 함께 했다.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묵묵히 실천해오신 분들을 알게 되고 만나는 시간은 항상 기다려진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는 묘한 긴장감과 삶에 대한 겸허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수십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재능기부자들은 존재 자체로 감동을 준다. 이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드는 과정은 늘 즐겁고 행복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APA를 함께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을 찾는 기쁨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APA 조직위원회 위원

2009년 일본인 할아버지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1960~70년대 청계천 빈민촌 사진을 서울시에 기증하러 왔다가 푸르메재단 소식을 듣고 들렀다고 했다. 할아버지를 장애어린이를 치료하고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그는 장애어린이들을 안아주시니 어머니 손을 잡고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꼭 알아주실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한사코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여비를 손에 쥐어주고 떠났다. 노무라 모토유키 할아버지였다. 그 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여비를 기부해주시곤 한다.

노무라 할아버지가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은 것은 1968년. 우연한 기회에 찾은 청계천 빈민촌은 생지옥이었다. 살이 썩어 들어가 구더기가 넘쳐나는 소녀가 방치되는 참상을 목격하고 그는 여행을 중단하고 청계천에 남았다. 장애어린이의 수술비를 지원했고 버려진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러줬다. “많은 사람이 악취와 오물, 소음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물론 인근 교회들도 돌보지 않는 데 분노했습니다. 청계천은 인분과 쓰레기로 가득 찬 거대한 콜타르 같았지만 그 옆으로 고층빌딩이 날마다 올라가고 있었습다.”

노무라 할아버지는 중앙정보부의 감시 속에 일주일 이상 한국에 머물 수 없었지만 50여 차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구호기금을 모았다. 청계천 빈민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서독과 미국, 호주 등 어디든 달려갔다. 1973년에는 도쿄 집까지 팔았다. 그의 동지는 제정구였다. 한국과 일본 두 청년의 우정은 현해탄을 넘어 청계천 도시빈민들의 삶속에 녹아들었다. 청년 노무라가 외국에 청계천의 참상을 알리고 기금을 모으기 위해 찍은 1970년대 서울의 모습은 우리 현대사를 조명하는 귀중한 사료가 되었다.

90살의 노무라 할아버지는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방문해 빈민가 어린이 대신 가난한 장애어린이들이 치료받은 모습을 지켜본다. 그리고 옛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빈다.

2015년 APA의 첫 수상자로서 노무라 할아버지가 선정됐다. 2016년에는 미얀마 군사독재에 항거해 민주화운동과 교육사업으로 일생을 바친 마웅저 씨, 2017년에는 한국 해외입양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해외입양인 권익향상운동을 위해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 2018년에는 이탈리아에서 귀화해 성남의 독거노인과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면서 매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김하중 신부에게 대상이 수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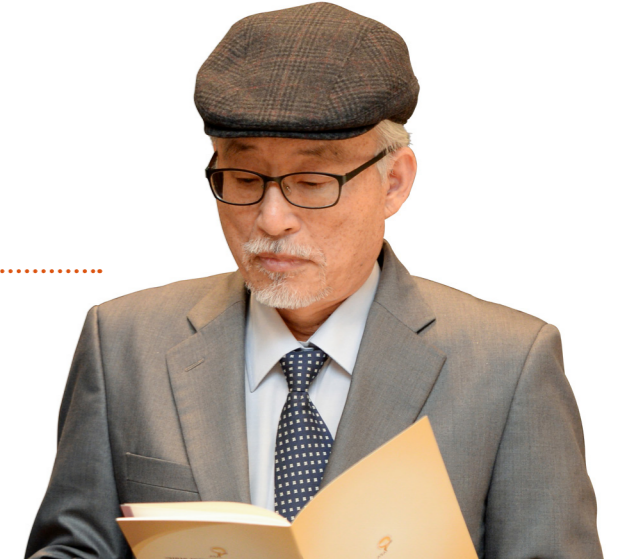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빛을 밝히는 수많은 영웅들 덕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우리 시대의 숨은 영웅을 찾아내 세상에 알리는 기쁨. 그들의 인생을 통해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 APA의 사명이 아닐까.

APA를 함께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지난 5년이 있었기에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비케이 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
APA 조직위원회 위원



APA는 2014년 한양대학교 <‘필란트로피 이해와 실천’>이란 학부 교양과목에서 'prize philanthropy' 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cornerstone 프로젝트 차원으로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필란트로피의 인문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실제 실천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기부하고, 참여하고, 서브하고, 요청하는 통합적인 실천의 아이디어로 출발했다.

교실의 drawing board를 현장으로 이식하려는 시도는 여러 질문들을 제기하게 하였다 특히 “과연 한국의 실정에 아시아와 필란트로피란 개념이 맞는가?”라는 논쟁이 가장 컸다. 교실과 현장을 잇는 과정은 여러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초창기 창립 멤버인 김현수, 윤정숙, 이선희 씨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다 생소했던 APA를 소개하고 설득하는 수고로움으로 APA가 첫 걸음을 뚫 수 있었다 조직위원을 구성하고 3無라는 가치를 정립해 비로소 2015년에 첫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해외를 포함한 100명의 심사위원과 그들의 헌신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았다. 재정적인 문제는 참여해주신 심사위원님들이 십시일반 후원으로 해결하였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어 지금까지 5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

새로운 필란트로피의 방향이 단순히 자원의 분배와 재화의 이동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순가치를 창출해 내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가 존재하고 발전하길 기대한다. 단순히 상을 주어 격려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로 이끄는 바로미터를 넘어 방향키가 되길 기대한다.

다음 세대는 이 시상식을 통해 어떤 가치와 방법으로 필란트로피를 진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APA를 함께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필란트로피의 시작

손미정

예술의전당 차장
APA 심사위원회 필란트로피스트 부문 부위원장

나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회사 이외에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 바로 APA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영광스럽게도 '올해의 필란트로피스트' 부문 후보자들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1년에 한번 APA시상을 위해 아시아 전역에서 추천받은 훌륭한 분들의 공적사항을 면밀히 읽어보고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시상식이 있는 날이면 행사진행을 돕고 싶어 연차휴가를 낸다. 지난 5년간 조직위원에 속한 회원들은 APA시상식을 위해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시아에 숨어있는 필란트로피스트들을 예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겉으로 보면 필란트로피스트라는 것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약자들을 위한 굉장한 변혁운동 같은 것을 실행하는 등 대단한 성과를 내는 일만 해당된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필란트로피라는 것은 자신이 보유한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자원을 기꺼이 기부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선진국을 규정하는 지표 중에는 경제, 복지, 환경 등을 비롯하여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지만 부유한 선진국의 국민이 반드시 행복한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부탄, 코스타리카 등 결코 선진국은 아니지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이웃과 더불어 자연에 순응하며 자기 앞에 놓인 삶을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감이 높다고 한다.

나는 APA가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삶속에서 폭주기관차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짓밟힌 약자를 돌보는 필란트로피스트들의 희생을 칭송하고 축하해 주는 역할, 그래서 지치지 않고 필란트로피스트들이 옳은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는 역할, 당신이 한일은 옳은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따를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무언의 응원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록 나 이외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고 진정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올해도 나는 연차휴가를 내고 시상식장에 가서 의자를 나르고 테이블을 세팅하며 시상식 준비를 도울 것이다. 나의 시간과 작은 관심을 나누는 일 그것이 필란트로피의 시작일 테니까.

APA를 함께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삶에 대한 관점과 방향을 새롭게 한 APA

박재홍

CBS 아나운서
APA 시상식 사회자

APA에 참여한지 이제 5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상식 진행을 하고 돌아가는 처지였지만 해가 갈수록 APA에 느끼는 책임감과 애정은 더욱 커졌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국 사회 더 나아가 아시아 속에 숨어있는 보석같은 분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속한 방송사인 CBS 역시 상업방송이 아니라 공익성을 중시하는 재단법인이기에 APA를 만드는 영웅들의 땀과 진심에 공감했던 시간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APA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특히 APA는 저의 삶에 대한 관점과 방향을 새롭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마음을 두드린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일상성'이었습니다. 세계보편의 숭고한 가치인 '필란트로피'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진실 되게 감당해 내는 것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1970~80년대 청계천 도시 빈민에게 약 8억원을 지원하는 등 50년간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약자들을 위해 봉사한 노무라 모토유키씨를 기억합니다. 노무라 할아버지라 불린 제1회 필란트로피스트 수상자의 삶을 보며 자신의 안위와 욕구에 점철된 부끄러운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했더랬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을 찾아 속죄하고,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농성장을 방문하는 등 이웃나라의 사회적 약자를 향한 마음은 제가 진실로 닮고 싶은 행동하는 의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5년째를 맞이한 APA를 응원합니다. APA가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고 실천하고자하는 놀라운 가치들이 세상을 바꾸는 민들레흙씨가 되어 위대한 열매로 더욱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PA를 함께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한 5년

이경란

모든커뮤니케이션, 모든브릿지 대표
APA 심사위원회 청소년필란트로피스트 부문 위원

APA와 함께 한지 5회째가 되어 간다.

2회 째를 맞이할 때 즈음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다.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생각을 나눌 수 있을까?'의 의문에서 시작해 한 회, 한 회가 값진 결실의 시간들이었다. 내 인생에서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다. 그 새로움은 겸손이었고 배움이였다. APA를 알게 된 지금은 감사하다는 표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느끼면서 지금까지 그 감동에 감사하며 동행하고 있다.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옳았음을 칭찬해주는 아름다운 시간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곳, 내게 APA는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이곳은 내게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모든 움직임들이 다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고 새로운 생각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곳이었다.

희망이라는 단어,
나눔이라는 단어,
웃음과 이웃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일깨워 준 곳이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며 감사함을 표현해주는 작은 몸짓에서 시작되었던 APA.
한 해 한 해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사람들이 함께 가치 있는 삶을 그려주는 곳.
그런 곳과 함께 해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나 아닌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은 어떠한 달콤한 기회보다 더 빛나는 순간이었음을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곳. APA

앞으로 변함없이 APA의 시작의 의미를 바로새기고 APA가 가져온 변화를 응원하며, APA와 함께 하는 미래를 기대하며 함께 웃고 싶다.
함께 아시아를 다시 일으키는 미소, 그 미소를 가진 선함을 실천하는 사람들, 필란트로피스트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그들의 꿈을 응원한다.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한 5년의 APA 기록으로 새겨진 의미 있는 시간들.

APA를 함께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내게 뜨거움을 느끼게 해 준 APA와 함께 한 귀한 시간

조하정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기금사업팀 팀장
APA 사무국장

2015년 APA는 뜨거움 그 자체였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비영리 분야에서 권위있고 명예가 되는 시상식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하나의 아이디어는 뜨거운 불꽃으로 피어났다. 불과 1년이 안되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첫 번째 시상식이 어떻게 개최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기적 같지만 하다. 그리고 그 기적은 2019년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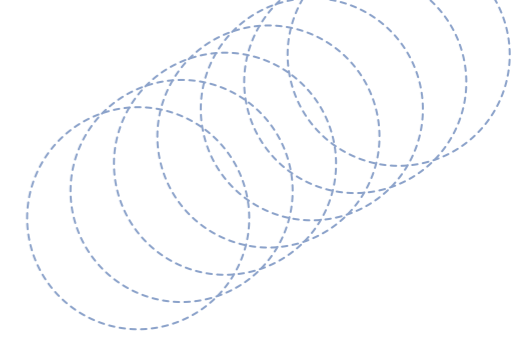
비영리 영역에 종사하거나 공익적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100인 심사위원"과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아시아에서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나눔실천가(필란트로피스트)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공적과 철학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매년 대가 없는 참여가 이어졌다. 후보자 발굴부터 시상식 운영, 기금 납부까지 모든 것이 이분들의 자발적인 투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수상자들은 역설적이게도 상금이 없는 시상식이라 더욱 명예롭고 값지다고 말하고 회를 거듭할수록 APA를 위해 도움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혹자는 APA의 취지에 공감하여 참여를 원했고 혹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명을 받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였다. 어떻게든 기여할 방법과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 그분들의 기여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레 동기부여가 되어 자원봉사 스텝들도 매사에 성심을 다해준 것 같다.

아직은 매우 작은 플랫폼이지만 한국을 넘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비영리 영역에서 APA가 왜 필요할까? 5년동안 거듭 했던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APA수상자들과 함께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숨은 영웅을 찾고자 하는 것은 불굴의 의지와 송고한 희생 등 초인간적이고 드라마틱한 영웅적인모습을 강조하고 한 번 더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영웅과는 거리가 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포기되지 않고 실천되고 있는 풀뿌리 선행들을 찾아 알리기 위한 노력이었다. 수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이 전해질 때마다 위축되어 있던 선한 의지들이 일깨워지는 듯했다. 감사와 격려가 이어졌고 세상은 그만큼 더 희망 있고 따뜻해지고 있음이 느껴졌다. APA는 이렇게 사랑과 감사, 협력과 나눔이 실천되는 경험의 기회,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하고 꽤 오랫동안 기다려 온 것 같다.

APA를 돌아보다



- | 2015 APA
- | 2016 APA
- | 2017 APA
- | 2018 APA
- | 2019 APA

역대 수상자
사진으로 보는 시상식
함께한 고마운 분들



2015 APA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 | 역대 수상자
- | 사진으로 보는 시상식
- | 함께한 고마운 분들

2015 역대 수상자

올해의 필란트로피스트 상, 노무라 모토유키



1931년 일본에서 출생하였고 일본 내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 목격한 이후 한국에 대한 봉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 청계천 빈민운동을 하는 고 제정구 의원을 만나 한국의 도시빈민과 노동자들을 위해 일본인이 저지른 과거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다. 1973년~1985년 한국을 50여 차례 방문하여 청계천 도시빈민을 대상으로 빈민 구호 활동을 전개했다. 당시 청계천 도시빈민을 돕기 위해 일본은 물론 독일, 뉴질랜드 등까지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으며 그 당시 7,500만엔(약 8억원)을 모아 지원했다. 본인의 활동은 사비로 모두 충당하고 도쿄의 자택까지 팔아 지원하였다. 당시 청계천 빈민과 피복노조, 서울시의 변화상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2014년 서울시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최근 노무라 씨는 위안부 소녀상을 찾아 속죄하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장을 방문하는 등, 한국 사회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찾아 빈곤문제를 다루는 한국정부와 시민들의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장애 아동을 돕는 일에도 적극 동참하며 국경을 넘어 필란트로피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의 펀드레이저 상, 이광재

'펀드레이저'라는 개념이 척박했던 1998년부터 펀드레이저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소원 들어주기' 프로그램을 국내에 확대시켜 2004년에 50명이었던 수혜아동이 2014년에는 340명으로, 자원봉사자는 200명에서 1,200명으로, 기관의 기부금은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의 성과를 만드는데 역할을 크게 하였다.



2015 역대 수상자

올해의 NPO 상, 사단법인 드림터치포울

(사)드림터치포울은 교육소외계층학생을 위한 교육 멘토링 전문기관이다. 2011년 설립하여 지금까지 400명의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이 스탭과 교사로 활동하며 교육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Data Tracker' 및 'Flipped Classroom(역진행 수업)방식' 등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남북한 언어 차이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글동무'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여타 유사한 프로그램과 달리 학교 안에서 공교육의 대체제가 아닌 보완재로서의 역할로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리더로 성장하도록 하는 등 양방향으로 지속가능하고 개발도상국에서도 확장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올해의 청소년 필란트로피스트 상, 김소희

김소희 양은 '캄보디아의 어려운 가정에 배 보내기'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하여 네이버 해피빈 모금을 통해 460명이 기부에 참여하도록 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4척의 배를 기증하여 어촌마을 4가정의 자립을 도왔다. 학교에서는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나만세프로젝트(나눔으로 만나는 세상)'를 분기별로 전개하여 기증품을 모아 굿윌스토어에 전달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나눔교육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김소희 양은 환경전문가가 되어 적정기술을 통해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필란트로피스트이다.



올해의 여성 필란트로피스트 상, 노국자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 여행을 한 후 물이 없어 고통 받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2006년부터 10년 동안 활동하고 있다. '우물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할 뿐 아니라 빈 병과 헌 옷, 폐지 등을 주워 판 돈으로 후원하기도 했다. 그동안 1,500명의 후원자를 직접 개발하여 1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고,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의 외딴 마을에 19개의 우물을 기증하였다. 노국자 수상자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10년간 지속적으로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 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공적상, 故 김석산 (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1963년부터 2010년까지 47년간 빈곤아동들을 후원하고, 후원자와 아동들을 1대1로 결연을 맺어주며, 미아 찾기 사업을 통해서 아동들을 가족의 품으로 찾아주었다. 아동들에게 집중하는 활동과 동시에 다양한 단체, 기업들의 후원을 얻어내어 교육, 생활용품, 후원금을 전달하는 다양한 내용의 후원 활동을 실천했으며, 어린이재단을 대표적인 어린이복지기관으로 성장시켰다. 수혜자와 언론, 일반인들에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을 수행했고 아동복지계의 역사로 인정받고 있다. 고 김석산 회장은 평생 지속한 아동복지를 위한 헌신과 비영리 분야에 미친 업적이 높이 평가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15 사진으로 보는 시상식



▶ 2015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APA 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	
이종수	IFK임팩트금융 대표
이진수	국립암센터 명예교수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Maung Zaw	Thabyae CEO, 2016 올해의 필란트로피 스토 부문 수상자, Myanmar
Gwendolyn Pang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China
Masataka Uo	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CEO, Japan
J.R. Pangilinan	Japan
Rewati Raman Dhakal	World Scout AP Regional Director, Philippines
Usha Menon	Founder and CEO of NCPD, Nepal Management Consultancy (Asia) Executive Chairman, Singapore
Penelope Cagney	The Cagney Company President & CEO, USA
위원	
강학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권태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고문
남부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서석해	한국정책재단 이사장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전)상임이사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
이승훈	국립암센터 교수, M.D.
장 건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전현숙	서울 YWCA 사무총장
최명덕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Minky Worde	Human Rights Watch, Director of Global Initiates
고 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이사장
김기덕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박기남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비케이 안	CFRE,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
이동수	상명대학교 교수
이선희	휴먼트리 대표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전성실	나눔교육연구소 대표
정인조	부천희망재단 이사장
최재원	서울아산병원 대외협력실장, M.D

심사위원장단

위원장	윤정숙 - 아름다운재단 (전)상임이사
부문별 심사위원장	
강학봉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박기남	-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백경학	-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비케이안	- CFRE,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이종수	-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전성실	- 나눔교육연구소 대표

기금후원

김기덕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
김범용	부천희망재단 상임이사
서석해	한국정책재단 이사
박란희	더나은미래 편집장
김봉신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차장
육심나	다음카카오 사회공헌파트 파트장/부장
장보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구센터장
정현경	서울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
최종협	삼성서울병원 병원발전후원회 책임
강학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고 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
권태선	허핑턴포스트코리아/환경운동연합 고문/공동대표
김경식	한국스카우트연맹 국장
김봉신	
김선화	
김신균	한동대 모금가
김영란	전) 대한결핵협회 본부장
김종수	암사재활원 원장
김현수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김홍남	서울문화재단 본부장
박기남	한국여성재단 (전)사무총장
박란희	
박종익	와이즈자산관리 이사
박종호	기아대책 본부장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부천희망재단	
비케이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 CFRE
서석해	
손미정	예술의전당 부장
염진수	더나은세상 이사장
육심나	다음카카오 사회공헌팀장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전)상임이사
이동수	상명대학교 교수
이미선	일본 마음의 가족 기금 본부장
이선희	휴먼트리 대표
이승훈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이창원	한양대학교 교수
임영주	삼성병원 과장
장건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장보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소장
장진민	이음스토리 이사
전동건	mbc 부장대우급
전성실	나눔교육연구소 대표
정나래	KAIST Senior Manager
정인조	부천희망재단 이사장
정현경	한국모금가협회 운영위원
조성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과장
조주영	숙명여대 펀드레이저(대리)
조하정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기금모금팀장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최재원	서울아산병원 대외협력실장
최종협	
한국스카우트연맹	
환경재단	서울대학교병원
황윤주	

현물 / 공간후원

수상자 의상 후원	더나눔 플러스
-----------	---------

사무국 STAFFS

Program	김현수 CFRE
Director	박종호 기아대책 본부장
홍보팀장	조하정 경제교육협동조합 대표
행사팀장	김홍구 흥구기획 대표
시상식 프로듀서	CFO 국제협력팀장 김화정 CPA CTO 유기남 샘물중고등학교 대외협력팀장
행정지원팀장	김세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김봉신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차장 박경원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연구원 정규상 기아대책 팀장 조현준 기아대책 간사 최병수 기아대책 간사

시상식 행사 자원봉사자

손미정	예술의전당 홍보부 과장
이미선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연구원장
정나래	카이스트 경영대학 대외협력실 시니어 매니저
최종협	삼성서울병원 병원발전후원회 책임
한양대학교 재학생	Benjamin Cheong, Bunyod Abdurkarimov, Hotan Mazrouee, Julia Linke, Kristi Wong, Kristina Galstyan, Quentin Richard, Tuani de Sa Rosa

APA 준비를 위한 재능기부 / 자원봉사자

APA 시상식 및 프로듀싱	김홍구 흥구기획 대표
공연	변남석 밸런싱 아티스트
촬영	나종민 바라봄 사진관 대표
구은주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간사
김상빈	서울대학교 학생
김호경	기아대책 간사
원지을	안양샘병원 펀드레이저
윤다정	세이브더칠드런 간사
이은실	충남대학교 사무원

2016 APA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 | 역대 수상자
- | 사진으로 보는 시상식
- | 함께한 고마운 분들

2016 역대 수상자

올해의 필란트로피스트 상, 마응저



미얀마 군사 독재 정부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하다 1994년 한국으로 피해오면서 이주노동자 생활과 한국사회의 시민운동을 경험하였다. 시민운동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3년부터 미얀마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활동을 시작하고 2010년 '따비에'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교육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외국 동화책을 번역출간하여 자국 어린이들에게 보급하는 동화책 보급 사업과 다른 나라와 연계하는 다양한 교육교류 프로그램은 미얀마 전체의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자국의 시민들은 물론 다른 나라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지지를 이끌어 내며 미얀마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얀마의 민주화 소식을 자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진행된 피스라디오 캠페인(미얀마 국민들에게 라디오 보내기)은 애드 보커시와 모금을 연결시켜낸 새로운 사례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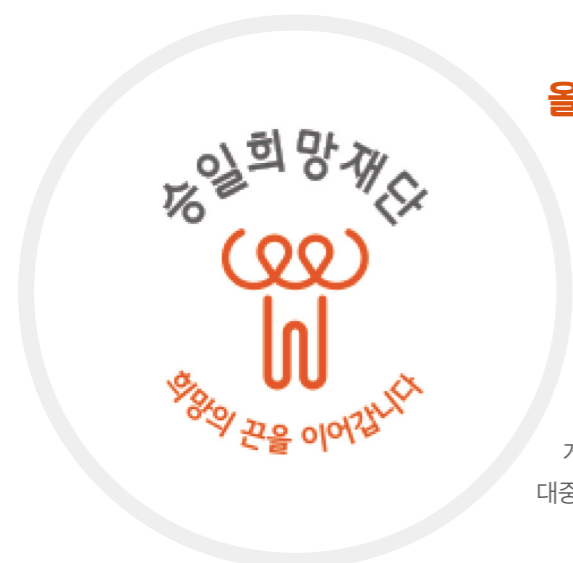
올해의 펀드레이저 상, 김범용

김범용 상임이사(부천희망재단)는 수년간 부천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을 해오면서 정부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사업의 중복지서비스와 복지사각 지대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기반의 나눔문화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최초의 지역재단인 부천희망재단 설립을 주도하였다.

지역재단 설립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대상자 관점의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공공영역 재생산 모델을 개발 제시는 물론 기부문화 개선에 앞장서왔다.



2016 역대 수상자



올해의 NPO 상, 승일희망재단

(재)승일희망재단은 루게릭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루게릭환우를 지원하고 루게릭요양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2011년 7월 19일 설립된 루게릭환우를 위한 국내 유일의 비영리재단법인이다.

재단의 공동대표인 박승일 대표(전 프로농구 모비스 최연소 코치)는 자신이 루게릭을 앓고 있으면서도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실천적인 희망을 전파하고 있다. 기부자로 첫 인연을 맺은 선(본명 노승환) 공동대표는 루게릭요양병원 건립을 목표로 루게릭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기부를 대중과 문화의 장으로 이끌며 한국의 기부트렌드의 변화를 주도해오고 있다.

올해의 여성 필란트로피스트 상, 노지향

노지향 대표는 대한민국 최초 치유 연극을 도입하여 새터민, 소년원생,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된 사람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치유 연극 및 성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그들의 상처치유와 자존감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7년에는 자비로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 공간-해'를 설립, 소외된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연극 공연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50회 이상의 공연을 하였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소년원생들의 문신 지우기, 남·북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기지촌 여성과 가족 간 관계 회복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소외된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소통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의 청소년 필란트로피스트 상, 십시일밥

십시일밥은 '10개의 손가락이 모여 한 사람의 한 끼가 된다'는 십시일밥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대학생 비영리민간단체이다. 2014년 2월, 한양대학교 내에서 약 30여명의 학생들로 시작되어 현재 전국 11개 대학, 20여개의 대학 내의 학생 식당과 함께 하는 단체로 성장하였다.

또한, NGO와 협력하여 '십시일찬'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기초수급자 대학생들에게 식권 지원, 지역인근 고립된 노인 대상으로는 밑반찬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단순히 식권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비영리단체로써 자리매김하며 대학 내에서도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선순환적인 나눔을 통해 새로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16

사진으로 보는 시상식



▶ 2016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APA 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대한성공회 주교, 사회연대은행 이사장
부위원장	
권태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고문,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종수	Jonathan Chang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Jonathan Chang	Lien Centre for Social Innovation, Executive Director, 싱가포르
Linda To	HER Fund, Executive Director, 홍콩
Masataka Uo	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CEO, 일본
J. R. Pangilinan	World Scout AP, Regional Director, 필리핀
위원	
정현	공주대 명예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위원장, 화가
비케이 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 CFRE
강학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김경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기획조정본부장
김영옥	올마이키즈 이사장
박원일	박원일회계사무소 대표
안동근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유병선	사단법인 씨즈 이사장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전)상임이사
이동수	상명대학교 교수
이선희	휴먼트리 대표
이승훈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M.D.
장 건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전현숙	서울YWCA (전) 사무총장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Minky Worden	Human Rights Watch, Director of Global Initiates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박기남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고 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이사장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대표상임이사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총장
박용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배원기	홍익대학교경영대학원 부교수
염진수	사단법인 더나은세상 이사장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

이경란	(주)모든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
이승훈	국립암센터 국립암대학원대학교 교수 M.D.
전성실	나눔교육연구소 대표
정인조	부천희망재단 이사장
최재원	서울아산병원 대외협력실장, M.D.

심사위원장단

위원장 윤정숙 - 아름다운재단 (전)상임이사

부문별 심사위원장

부문	심사위원장	
필란트로피스트	김정현	공주대 명예교수, 화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위원장
펀드레이저	비케이안	CFRE,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
NPO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청소년 필란트로피스트	염진수	사단법인 더나은세상 이사장
공적상	강학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여성 필란트로피스트	박기남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기금후원

강보향	함께하는마음재단 자원관리센터 소장
강학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고 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
권태선	허핑턴포스트코리아/환경운동연합
김경식	한국스카우트연맹 국장
김영옥	한남대학교 교수
김신균	한동대 모금가
김영옥	올마이키즈 이사장
김영후	휴먼인러브 이사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대표상임이사
김인수	외환은행 사회공헌팀 차장
김중수	암사재활원 원장
김진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학 총장
김현수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김홍남	서울문화재단 본부장
더나은세상	
박기남	한국여성재단 (전)사무총장

박상규	(주)아카데미라운지 대표
박용주	(주)GB STYLE 회장
박종익	와이즈자산관리 이사
박종학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박종호	기아대책 본부장
방대옥	다음재단 이사장
배석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부장
배원기	홍익대학교경영대학원 교수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비케이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 CFRE
서현선	진저프로젝트 팀장
손미정	예술의전당 부장
박영대	올마이키즈
원선아	(사)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사무국장
유원식	기아대책 (전)회장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전)상임이사
이광재	따뜻한동행 상임이사
이동수	상명대학교 교수
성남이로운재단	
이미선	일본 마음의 가족 기금 본부장
이상호	광주희망재단 이사장
이선희	휴먼트리 대표
이승훈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이지수	AAPBS Associate Director
이창원	한양대학교 교수
전현숙	모아 대표
정나래	KAIST Senior Manager
정인조	부천희망재단 이사장
정현경	한국모금가협회 운영위원
조주영	숙명여대 펀드레이저(대리)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최재원	서울아산병원 대외협력실장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이사
허보영	월드비전 차장
환경재단	
김동훈	(사)더프라이미스 국제사업국 국장
김정현	공주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명예교수/화가
박란희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이사(편집장)
박재홍	CBS 아나운서
염진수	사단법인 더나은세상 이사장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

장 건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정문선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현물 / 공간후원

수상자 의상 후원	더나눔플러스
회의 장소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투자
행사장소후원	한양대학교

APA 준비를 위한 재능기부 / 자원봉사자

APA 시상식 기획 및 프로듀서	김홍구 흥구기획 대표
APA 영상 기획 및 제작	이경란 모든커뮤니케이션 대표
기금운영시스템 지원	(사)함께만드는세상
언론 홍보	박란희 더나은미래 이사(편집장)
홍보 영상 기획 자문	김종욱 휴먼트리 이사
온라인 홍보 교육 자문	김옥희 샘커뮤니케이션 대표

시상식 행사 자원봉사자

김미래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혜원	승의여대 패션디자인 서진석
손미정	예술의 전당 과장
김진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
이지수	AAPB Associate Director
정나래	KAIST Senior Manager
사진촬영	나종민 바라봄 대표

2017 APA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 | 역대 수상자
- | 사진으로 보는 시상식
- | 함께한 고마운 분들

2017 역대 수상자



올해의 필란트로피스트 상, 김도현

김도현 목사는 2001년 스위스에서 사역을 마치면서 2004년 한국으로 돌아와 (사)뿌리의 집 원장으로 취임했다. 2014년 미국에서 발생한 입양아동 현수군의 사망 사건과 2016년 한국에서 발생한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 깊은 애도와 함께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나아가 60년 해외입양의 역사의 종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종결에 따른 역사적 반성의 일환으로 해외입양을 과거사 의제로 삼아 진실과 화해의 맥락에서 해외입양의 역사를 재구성해야 함을 주장하며 그 물꼬를 트기 위해 애쓰고 있다.

올해의 펀드레이저 상, 이현승

이현승님은 세상을 변화 시키는 동력을 만드는 사람 “공익 마케터, 펀드레이저 그리고 “Change Maker”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영향력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증부터 모금 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현승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많은 미션을 부여받아 모금 성과를 이루는 동시에 비영리단체가 당면한 자원개발에 관하여 <가지 않은 길>을 기꺼이 열고 이끌어가는 모금가이다. 단지 개인적 기량만 뛰어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비영리조직을 위한 건강한 모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며 방법을 모색하는 개척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열정과 성과들로 한국 모금가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다.



2017 역대 수상자

올해의 NPO 상, 스마일재단



스마일재단은 국내 최초, 유일의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NPO이다. 2003년 설립이후 14년간 지속적으로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의료비 지원(2,278명,40억), 이동치과진료 (78회, 장애인 4,646명), 봉사단체 발굴 및 지원(110곳), 장애인 구강관리 교육 및 구강위생용품 지원(장애인단체 551곳), 장애인치과센터 설립 및 지원 등의 치과의료 복지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치과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구강건강 지킴이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단발적인 봉사 활동으로는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의식 하에 설립된 스마일 재단은 지난 14년간 모금 및 배분사업의 양적, 질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임원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직원들의 비전 몰입도가 높은 조직으로 14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활동을 해왔으며, 지속적으로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의 여성 필란트로피스트 상, 이금연

이금연님은 '전희생, 진애인, 상희락'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국제가톨릭형제회(AFI) 소속으로 1986년부터 이주와 노동을 주제로 사회활동을 시작한 이래 사회교육과 여러 분야의 복지활동에 투신하여 왔다. 특히 1992년 안양근로자회관에서 국내 이주노동자들에게 상담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97년 같은 기관 책임자로 이주노동센터와 쉼터를 설립하였고, 그곳에서 만난 네팔 노동자들과의 인연이 계기가 되어 2000년부터 현재까지 네팔을 정기적으로 방문, 학교 지원과 장학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금연님은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이룬운동이 한국에 있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의 청소년 필란트로피스트 상, 웅달샘



웅달샘은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만든 해외 적정기술 봉사 동아리로, 2014년 2월 처음 창립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물 부족 현상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적정기술을 활용한 수자원문제 해결 및 현지 필요에 따른 적정기술 설비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과 파트너십을 맺어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웅달샘은 적정 기술 지원과 현지 위생 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한 봉사를 지향한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환경과 수질을 개선해 나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웅달샘의 궁극적인 비전인 것이다. 이런 웅달샘의 노력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지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공적상, 故 백수남

故백수남님은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 후 1953년 데레사모자원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자선사업을 시작했다. 싱글맘 (전쟁 미망인, 비혼모, 사별 등)과 그 아이들을 위해 사재를 털어 1997년 소천하실 때까지 40년 이상을 헌신했다. 2남 1녀를 두었으며 돌아가신 후 큰 손녀(최주찬의 장녀 최정은)가 물려받아 사회복지법인 W(W-ing)으로 개칭하여 성매매여성, 비혼모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보호나 복지를 넘어 자활과 자립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자신이 싱글맘으로 생계를 꾸리고 아이들을 키웠던 故 백수남님은 53년 이후 소외된 여성들의 어머니로 활동하셨는데, 그 유업은 올해로 63년을 맞이하여 복지, 고용, 자활과 독립 등 소외된 여성들의 삶을 키우는 새롭고 실험적인 삶의 터전, 활동모델로 정착하였다.



2017

사진으로 보는 시상식



▶ 2017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APA 위원회

위원

김정현	공주대 명예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위원장, 화가
비케이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 CFRE
강학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김경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기획조정본부장
김영옥	올마이키즈 이사장
박원일	박원일회계사무소 대표
김영후	휴먼인러브 이사장
안동근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유병선	사단법인 씨즈 이사장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전)상임이사
이동수	상명대학교 교수
이선희	휴먼트리 대표
이승훈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M.D.
장 건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전현숙	서울YWCA (전) 사무총장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Minky Worden	Human Rights Watch, Director of Global Initiat
Eddie Razak	Executive Vice President of Agensi Inovasi Malaysia
Penelope Cagney	President & CEO of The Cagney Company
이태주	(사)글로벌 발전 연구원 대표이사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이사
Usha Menon	MC ASIA PTE LTD
Executive Chairman of UM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박기남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고 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이사장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대표상임이사
박용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회 회장
배원기	홍익대학교경영대학원 부교수
염진수	더나은세상 이사장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
이경란	(주)모든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

이승훈	국립암센터 국립암대학원대학교 교수 M.D.
전성실	나눔교육연구소 대표
정인조	부천희망재단 이사장
Maung Zaw	CEO of ThaByae
권용석	(사) 행복공장 대표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오혜란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려두런 상임이사
최유강	드림터치포을 이사장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Kunal Verma	Managing Dorector of Center For Fundraising
Isabel SIM	Director(Projects) Senior Research Fellow of Natioanl University of Singapore(NUS)

심사위원장단

위원장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부문별 심사위원장

부문	심사위원장
필란트로피스트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펀드레이저	비케이안 CFRE,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
NPO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청소년 필란트로피스트	염진수 사단법인 더나은세상 이사장
공적상	강학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여성	전현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기금후원

강보향	함께하는마음재단 자원관리센터 소장
고 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
권용석	사)행복공장 대표
권태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환경운동연합 고문,공동대표
김경식	한국스카우트연맹 국장
김영옥	한남대학교 교수
김신균	한동대 모금가
김영옥	올마이키즈 이사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대표상임이사
김현수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김홍남	서울문화재단 본부장
노지향	행복공장 대표
더나은세상	
드림터치포을	
박기남	한국여성재단 (전)사무총장
박란희	
박상규	(주)아카데미라운지 대표
박용주	(주)GB STYLE 회장
박종익	와이즈자산관리 이사
박종호	기아대책 본부장
배석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부장
배원기	홍익대학교경영대학원 교수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비케이안	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 CFRE
손미정	예술의전당 부장
육심나	다음카카오 사회공헌팀장
이광재	따뜻한동행 상임이사
성남이로운재단	
이미선	일본 마음의 가족 기금 본부장
이상호	광주희망재단 이사장
이선희	휴먼트리 대표
이승훈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이지수	AAPBS Associate Director
이창원	한양대학교 교수
전현숙	모아 대표
정인조	부천희망재단 이사장
조하정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기금모금팀장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황선희	지속가능경영재단 대표이사
무명	

현물 / 공간후원

회의 장소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사무국 STAFFS

홍보마케팅팀	모든커뮤니케이션 임직원 (이상미 외)
1기 대학생	고수빈 동신대학교 학생
운영진	박수빈 울산대학교 학생
사무국장	이경란 - 모든커뮤니케이션 대표, 조하정 -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기금사업팀 팀장
기획 및 홍보마케팅팀	홍보팀장 : 이경란대표 - 모든커뮤니케이션대표 디자인팀 장 : 김보라 - 아쇼카한국 디자이너
심사기획팀	팀장 조하정 -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모금 컨설턴트 SNS 홍보담당 김보라 - 숙명여대 펀드레이저
행사팀	팀장 김홍구 - 흥구기획 대표
행정지원팀	팀장 김세순 - 여명학교 후원관리팀 간사 팀원 최윤석 - 한성대학교 재학생

APA 준비를 위한 재능기부 / 자원봉사자

번역	김인수 국제청년센터 센터장 민경진 박시훈 성유현 원희영 이한글 조지연
뉴스레터 디자인	김보라 아쇼카한국 매니저
문서작성	조지연
Fiscal Agent	(사)함께만드는세상
자원봉사자 모집	이지영 더나은세상 기획실장
홍보 기획 및 작성	

시상식 행사 자원봉사자

포럼/시상식 사회	박재홍 CBS 아나운서
시상식 BGM	오바지 뮤직 OBAZI MUSIC
시상식 진행	추혜미 (주)GB STYLE 한양대 대학생 자원봉사자

2018 APA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 | 역대 수상자
- | 사진으로 보는 시상식
- | 함께한 고마운 분들

2018 역대 수상자

올해의 필란트로피스트 상, 김하중



대한민국 최초 무료 급식소인 성남 안나의 집에는 이탈리아에서 온 김하중 신부가 있다. 2년 전 한국에 귀화한 그는 하느님의 종이라는 뜻으로 '김하중'이라 이름 지었다. 처음 일주일에 두 번, 후원금 100%로 운영하던 안나의 집 무료급식이 지금은 주 6일, 정부지원금 40%, 후원금 60%로 운영되어 하루 500~550여명이 안나의 집을 찾고 있다. 그는 무료급식에 만족하지 않고 노숙자들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노숙 청소년 센터를 설립(2002년)했다. 그는 말한다. "무료 급식을 통해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 "언제까지나 가난한 사람들 옆에서 희망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평생의 소망이다",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봉사하고 싶다", "행복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서 온다"라고. 저녁 무료 급식이 끝나면 그는 이동 청소년 상담소인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아지트)'으로 가서 현장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대면하고 상담한다. 살신성인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그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민이다. 그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슴 속 깊이 뭉클하게 하는 이 시대의 빛이요, 소금이요.

올해의 펀드레이저 상, 김이경

김이경 펀드레이저는 모든 프로젝트는 모금 과정과 결과 보고에 있어서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에서의 수 억 원의 동전 모금액을 언론과 참여자들에게 알리고, 사랑의 빵 나눔 단말기에 후원되는 1,000원의 후원금도 기부 영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였다. 후보자가 실행하는 프로젝트는 많은 파트너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각 파트너가 가진 특성과 강점을 역할에 맞게 적용시키고 있다. 사랑의 빵 나눔 단말기 프로젝트에 KB국민카드와 탐앤탐스를 통해 전국 KB국민은행과 매장에 나눔 단말기가 설치되도록 했으며, 삼성전자의 삼성페이로 접목시켜서 기부 결제 방법을 확대했고, LG유플러스의 통신망 사용 등 다양한 협력과 확장성 확보에 성과를 보였다. 김이경 펀드레이저는 일정 기간만의 지속이 아닌, 꾸준한 보완과 발전을 모색하는 형태의 지속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 캠페인에서의 콜라보 확대와 혁신적인 캠페인에서의 신규 아이템 추가 등 후보자의 끊임없는 시도는 모금과 기관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2018 역대 수상자

APA를 돌아보다



Sukhawati Foundation

올해의 NPO 상, 수커워티재단(네팔)

수커워티재단은 전적으로 해외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네팔의 NGO 환경에서 ‘수커워티가게’라는 사회적기업의 수익모델을 네팔 현실에 접목시키고 자원봉사를 통해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네팔 NGO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수커워티재단의 활동은 주부, 대학생, 사업가 등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수커워티재단은 네팔 스스로 네팔을 도울 때 네팔이 가난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같은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모든 활동을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는 점이다. 수커워티가게 1호점의 안정과 성장을 바탕으로 순회판매차량 운영과 2호점 개설을 계획하고 있고, 1차 프로젝트인 수커워티가게를 안정시킨 뒤 2차 프로젝트로서 친환경농산물직거래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기농전문 식당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의 여성 필란트로피스트 상, 김숙임

남북 교류가 막힌 10년 간의 통일운동 공백기 동안 김숙임 이사장은 조각보에서 남과 북, 조선족, 고려인, 재일동포 등으로 살아온 코리안 여성들의 삶 이야기를 통해 여성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통일에 관한 미시적 접근과 구체적 기반을 닦았다. 김숙임 이사장은 통일독일의 ‘괴델리츠 대화모델’을 적용, 이를 ‘다시 만난 코리안 여성들의 삶 이야기’로 재창안했다. 조각보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구술해가는 ‘평화의 사람 책 도서관’ 음식 만드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평화의 부뚜막’ 등 다양한 행사를 개발해 오고 있다. 김숙임 이사장은 ‘이제 지난 5년의 노력으로 일반인이 일상을 이야기하는 낯선 평화, 통일 여성운동’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이야기한다. 앞으로는 조각보를 이용해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위한 삶 이야기 센터를 만들고 통일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의 청소년 필란트로피스트 상, Idle Market

Idle Market은 홍콩의 The LINK나 YWCA와 같은 단체 혹은 회사들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매달 각 지역의 쇼핑몰에 실내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투자하고 있다. 수집된 물품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 대여비와 물류 운영을 위해 전체 품목의 1%는 Idle Market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2017년 4월부터는 Weekend Collection Day, Sham Shui Po에서의 야시장 투어, Christmas Sharing Market 등을 비롯한 14개의 행사들을 기획해 진행해왔다. 또한 Idle Market은 일 년 새에 50명 이상의 봉사자들을 모집했으며 단순한 물품의 전달뿐 아니라 “Share Replace Consume”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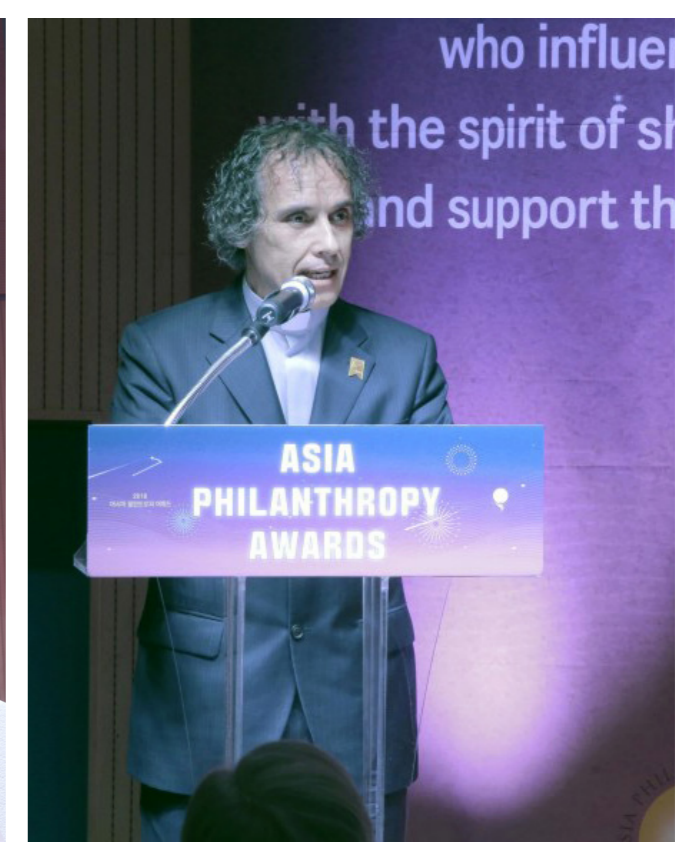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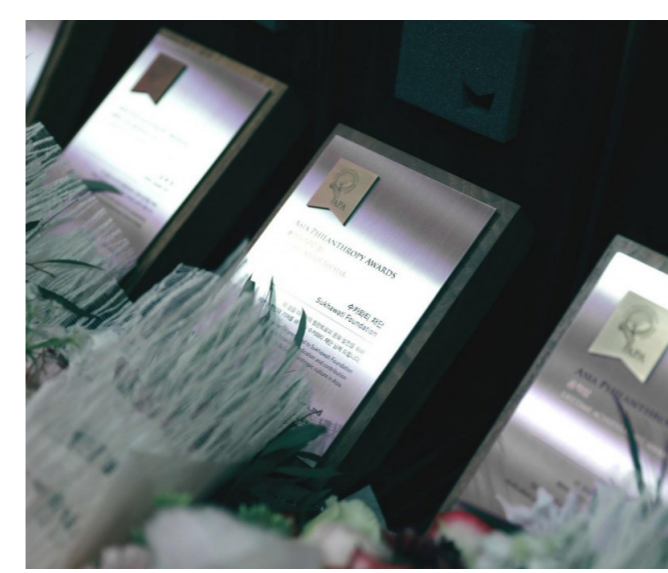
공적상, 이동한

이동한 이사장은 중증장애를 극복하여 사회의 생산적 일원이 되기 위해 계량사 등의 기술을 습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홀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장애인들에게 기술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제주지역 장애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1989년 제주도 최초로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했다. 1993년 제주지역 유일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춘강장애인근로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중 이동의 어려움으로 재활의지가 꺾이는 것을 보고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기숙사 자비관을 신축했으며 서귀포시 지역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육구 해소를 위해 2002년 서귀포시 지역 최초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어울림터를 설치하여 중증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

사진으로 보는 시상식



▶ 2018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APA 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	
이종수	IFK임팩트금융 대표
이진수	국립암센터 명예교수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Maung Zaw	Thabyae CEO, 2016 올해의 필란트로피스트 부문 수상자, Myanmar
Gwendolyn Pang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China
Masataka Uo	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CEO, Japan
J.R. Pangilinan	Japan
Rewati Raman Dhakal	World Scout AP Regional Director, Philippines
Usha Menon	Founder and CEO of NCPD, Nepal Management Consultancy (Asia) Executive Chairman, Singapore
Penelope Cagney	The Cagney Company President & CEO, USA

위원

강학봉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고 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이사장
김영옥	올마이키즈 이사장
김영후	휴먼트리 이사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대표상임이사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박란희	더퍼블리카 대표
박상규	(주)아카데미라운지 공동대표
박용주	GB STYLE 대표이사
배원기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백경학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비케이 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 CFRE
손미정	예술의전당 팀장
염진수	사단법인 더나은세상 이사장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이동수	상명대학교 교수
이상호	광주희망재단 이사장
이선희	휴먼트리 대표
이승훈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원장
장 건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전성실	나눔교육연구소 대표
전현숙	서울 YWCA 사무총장
정인조	부천희망재단 이사장
정종국	안성시노인복지관 관장
조하정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기금사업팀장
최유강	드림터치포올 이사장
최재원	서울아산병원 대외협력실장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이사
황신애	

심사위원장단

위원장 이종수 -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부문별 심사위원장

부문	심사위원장
필란트로피스트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펀드레이저	비케이안 CFRE,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
NPO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청소년 필란트로피스트	염진수 더나은세상 이사장
공적상	강학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여성	전현숙 YWCA 전 사무총장

기금후원

강학봉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상호	광주희망재단 이사장
김보라	프리랜서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대표상임이사
김현수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김홍남	서울문화재단 본부장
김영후	휴먼인러브 이사장
염진수	더나은세상 이사장
박란희	더퍼블리카 대표
박영대	올마이키즈 상임이사
박용주	(주)GB STYLE 대표이사
박재홍	CBS 아나운서
박종익	와이즈자산관리 이사
배석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부장
배원기	홍익대학교 부교수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손미정	예술의전당 차장
이광재	따뜻한동행 상임이사
이미선	일본 마음의 가족 기금본부장
이승훈	을지대학교의료원 원장
이종수	IFK임팩트금융 대표
이지수	AAPBS Associate Director
장 건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전현숙	서울 YMCA 전)사무총장 모아 대표
정인조	부천희망재단 이사장
정종국	안성시노인복지관 관장
조하정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기금모금팀장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현물 / 공간후원

회의 장소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국 STAFFS

사무국장	조하정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기금사업팀장
홍보마케팅팀	모든 커뮤니케이션 이경란 대표
심사기획팀	팀장 이지영 사단법인 더 나은 세상 실장
행사팀	팀장 김홍구 흥구기획 대표
행정지원팀	팀장 김세순 여명학교 후원관리팀 간사 팀원 이수정 APA 사무국 간사

APA 준비를 위한 재능기부 / 자원봉사자

번역	심재익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대학원생 박주현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 한규현 인천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
심사지원	유기남 샘물중고등학교 대외협력팀장
보도자료 작성	박란희 더퍼블리카 대표
영상 및 홍보물 제작	모든커뮤니케이션
시상식 연출	모든브릿지 양재영 흥구기획 PD 레드나인커뮤니케이션

시상식 행사 자원봉사자

포럼/시상식사회	박재홍 CBS 아나운서 Isabella Turilli 인천 문일 여고
시상식 진행	김현일 디스에이블드 대표, 박연희 프리랜서 더나은세상(이지영, 박주연, 주민정, 김진환, 서연수, 정록환, 유근지, 김지원, 우서윤)
행사스텝	모든 커뮤니케이션(최우리, 오태성, 남상득 감독, 김경무 조감독, 이화평 PD, 윤이나 작가)



2019 APA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 | 역대 수상자
- | 사진으로 보는 시상식
- | 청년서포터즈 1기
- | 함께한 고마운 분들

2019 역대 수상자

올해의 공적상 Girija Nandan 인도 Nav Bharat Jagriti Kendra(NBJK)

Nadan 대표는 1971년 3명의 친구들과 NBJK를 설립하였다. 그에게 사회문제란 사회의 정의, 경제성장, 자립을 막는 상황에서 초래된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교육, 조직 및 인력투입을 통한 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마하트마 간디로 대표되는 인도 국민 지도자들의 이데올로기를 계승하며 풀뿌리 필란트로피를 실천한 그는, 농촌의 수많은 사람들의 교육, 건강 및 생존 상태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했다. 센터 설립 이후 교육을 받기 힘든 어린이를 위한 교육 센터를 시작했으며 이후 지역 자원 봉사단, 학교, 고아원, 교정 코칭센터, 아동 기자, 어린이 중심 공동체 개발, 소녀 후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장애인,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한 의료시설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가했다.

Nadan 대표는 탈중앙화의 선구자로서 Jharkhand와 Bihar 내의 소규모 단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가 넘는 자발적 단체를 지원하며 NBJK의 사업을 확대하였다. 소규모 조직을 위한 능력 배양 훈련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그들이 업무 분야에서 필란트로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300개 이상의 소규모 자선단체들이 NBJK산하에서 필란트로피 산업을 육성 중이다. 그는 진실과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50년간 NBJK라는 비영리단체를 일궈냈다. 효과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으로 한 번에 약 50개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여러 기관들의 신뢰도 얻어냈다. 법적 구속력이라는 조건 외에도 Nadan 대표는 본인의 지침에 따라 단체를 이끌며 지역 내 가장 큰 자선단체 중 하나로 키워냈다. 또한 그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실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지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탄생시켰다.



2019 역대 수상자

APA를 돌아보다

올해의 NPO For Vietnamese Stature Foundation (VSF)



VSF는 어린이, 청소년 및 여성을 위하여 교육 및 건강 관리 기회를 증진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촉진하는 데 매우 헌신적, 적극적, 전문적인 비영리 단체다. VSF는 국공립학교 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기여한 최초의 NPO로서, 그 밖에도 젊은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가임기 여성을 위한 의료와 자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들은 선한 삶의 가치를 알리고 필란트로피를 강화하기 위해 수혜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필란트로피스트들과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지역사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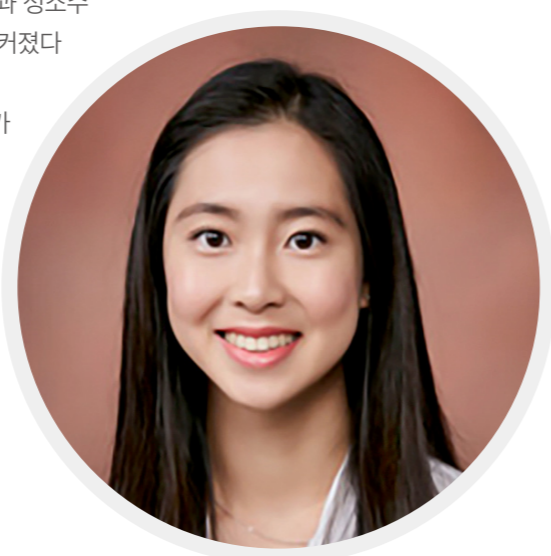
VSF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지역사회 주도의 계획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모색하고 제공한다. VSF는 노력, 전문성, 시간, 물품 기부라는 다양한 형태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기부자들은 수혜자들을 위해 가장 적절한 형태의 기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지원자들(개인, 단체, 기업을 포함함)을 정기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올해의 청소년 필란트로피스트, 조현비

음악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페미니스트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온 조현비 학생은, 본인이 겪은 문화적 충격을 통해 본인과 비슷한 친구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특히 다문화 배경과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정신적 혼란을 덜어주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고 한다.

본인이 사랑하는 음악을 통해 자선음악회를 열어 음악봉사를 하였으며, 아프리카 잠비아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개최하여 1,000만원을 모금하였고,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음악 치료용 CD를 제작하여 정신적 혼란을 겪고있는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성 불평등이 미국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여성인권운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그는,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전환 가능성에 대한 교육 자료와 설문지를 만들어 직접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성교육 과정에 성소수자 내용을 포함하려는 시도도 했을 정도로 관련 분야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다.



올해의 펀드레이저 부문, 안종길



안종길 부장은 한양대학교 대외협력팀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대학 발전기금담당 협의체인 대학발전기금협의회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대학모금관련 교육과 세미나를 매년 2-3회 개최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협의회 직무과정에 발전기금업무 과정을 2018년 개설하여, 교육을 통한 기부프로그램 개발과 노하우 사계를 공유하여 대학 기부문화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안종길 부장은 최초 거액모금만찬행사 캠페인 “한양, 힘이되는 밤” 개최를 통해 모금목표액 달성은 물론 다음 단계인 전 구성원을 통한 대중모금캠페인을 4년에 걸쳐 진행하였다. 수많은 기업인과 동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금캠페인을 수행한 결과 2018년 12월말에 초과달성으로 “감사의 밤”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다양한 모금캠페인을 통한 모금 뿐만 아니라 기부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 프로그램도 강화하여 기부만족도를 높이고 재기부에도 상당한 기부를 하였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자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기부금의 입출금 내역을 정확히 관리하고, 예우 항목을 추가하여 누적기부액별로 예우등급 관리가 용이하도록 개선하는데에도 기여하였다.

특별상: 필란트로피 셀러브리티 상, 박신혜

배우 박신혜는 2009년에 힘겹게 살아가는 네팔 아이들을 만난 것을 계기로 2011년부터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국내외 팬들과 함께한 ‘별빛천사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빈곤국가 아이들의 교육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였다. 1호 센터로 서부 아프리카 가나 ‘신혜센터(Shin Hye Center)’가 2013년 11월 완공되어 5백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2016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 신혜센터 건립을 진행했으며, 국내외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및 포항 지진 피해 지역을 위한 기부 및 사랑의 김장 봉사 등 수많은 선행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9

사진으로 보는 시상식

Asia Philanthropy Awards

APA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

th

ASIA PHILANTHROPY AWARDS

2019년 4월 24일 (수) 오후 2시
은행연합회 2층

펀드레이저 | NPO | 특별상 | 청소년 | 공적상

APA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는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 가치 실현에 헌신하는 필란트로피스트를 발굴하여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Asia Philanthropy Awards

APA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

th

ASIA PHILANTHROPY AWARDS

2019년 4월 24(수) 14:00
은행연합회 2층

1부 FORUM 14:00

2부 ASIA PHILANTHROPY AWARDS 15:15

**“필란트로피-ing”
“Philanthropy-ing”**

김영강 Kim Young-gang | KAST 2차

**“내 삶의 필란트로피”
“Philanthropy in my life”**

Girja Nandan Girja Satish | 2019 공적상 수상

2019 공적상 Lifetime Achievement Award
Girja Nandan Girja Satish
President (India)

2019 NPO상 The Best NPO of the Year
For Vietnam Statue Foundation (VSF)(Vietnam)

2019 펀드레이저상 The Best Fundraiser of the Year
연홍길 | Ahe Jong-Kil
한글재단 (한글문화원장)

2019 청소년 필란트로피스트상 Youth Philanthropist of the Year
조한비 | Karen HyunBee Cho
한미 과학학교 11학년

특별상 - 필란트로피 셀러브리티 Philanthropic Celebrity of the Year
박신혜 | Park Shin-hye
배우

3부 TEA BREAK 15:00-15:15

4부 2부 ASIA PHILANTHROPY AWARDS 15:15-17:00

15:15 축하 공연 | Celebration Performance

15:30 환영 인사 | Welcome Speech

15:35 축하사 | Congratulatory Message

15:38 시상 1 | Awards 1

16:15 APA 5주년 기념영상 | APA 5th Anniversary Celebration Video

16:20 심사 총평 | General Review

16:25 시상 2 | Awards 2

16:50 기념촬영 | Commemorative Photograph

APA 사무국
(066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플래티넘타워 6층 623호
02 - 3670 - 6014
asapawards@gmail.com
www.apawards.org

2019년 4월 24일 (수) 14시~17시 | 은행연합회 2층
Wed.24th April, 2019 14:00~17:00 | Korea Federation of Bank 2nd Floor

5th Anniversary
2019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
ASIA PHILANTHROPY AWARDS

5 번의 발견
아시아 나눔실천가 시상식 APA
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APA 청년 서포터즈 1기 활동을 마치며

김선주
-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 나에게 '타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대학에 입학하면', '취업하면'... 지금 당장 진정한 의미를 구하려 하기보단, 막연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이란 변명으로 실천을 미루어왔다. 지금껏 주로 배워왔던 것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 나에게 봉사활동이란 고등학생 시절, 보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여 참여했던 활동이었 듯 말이다. 하지만 지난 4개월간의 서포터즈 활동은 새로운 교훈을 주었다. 진정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뒤를 돌아보며 약간 뒤쳐져 있는 이들을 이끌어주고 보듬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필란트로피스트(philanthropist) 분들의 공통된 가르침이었다. 이분들의 삶을 통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누군가 나에게 활동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는다면, 주저 없이 마지막 공식 활동이었던 강화도 우리마을 방문을 꼽을 것이다. 평생을 필란트로피스트(philanthropist)로 살아오신 김성수 우리마을 촌장님과의 만남은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곳에서 정말 큰 에너지를 얻고 돌아올 수 있었다. 또, APA 청년 서포터즈라는 명분으로 평소 만나 뵙고 싶었던 한원주 원장님과 연락이 닿게 되어 개인적인 사심을 채우기도 했다. :) 뿐만 아니라, APA 측에서 필란트로피(philanthropy) 분야 관련하여 많은 강의와 관련 자격증 교육 기회도 제공하여 주셨다. 때문에 앞으로 비영리 기관 종사를 꿈꾸시는 분들께 서포터즈 활동을 특히 더 추천하고 싶다. 지난 4개월 간 서포터즈 활동에 있어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했다. 앞으로 APA의 행보를 응원하고 싶다!

민예린
-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APA 청년 서포터즈의 주 활동은 숨어 있는 필란트로피스트를 발굴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었는데, 서포터즈들에게 필란트로피스트라는 개념은 생소했다. 이러한 생소한 개념들, 앞으로 활동할 주요 개념들에 대해 텍스트로만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APA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강의도 직접 듣고, 관련 자료도 받고, 다 함께 토론폰도 하며 알아갈 수 있었다. 필란트로피 정신을 실현하는 필란트로피스트들을 위해, 필란트로피스트가 보다 많아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재능기부로 APA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활동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부분이었다. 비영리, 사회공헌쪽으로 시상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투명함을 위해 수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재능을 기부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어 많은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는 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APA의 존재를 알게 되고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과 만나 강의를 듣고,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며 "내가 그동안 바라봤던 세상"이 단지 한 면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다. 어두운 면이 큰 만큼, 그 반대편에는 APA와 같이 세상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APA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필란트로피스트를 발굴하기 위해 리서치를 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러 다니며 이러한 감정은 더욱더 커졌다.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열 개의 선한 것보다 한 개의 악한 것에 더 집중한다. 뉴스에도 선행보다는 악행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나온다. 나 역시 그동안 악한 부분에 집중해 세상을 바라봤던 것 같다.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적었던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필란트로피스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 일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 스스로 한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며 명예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악행에 비해 자극적이지 않은 일들이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다양한 이유로 무대 중앙보다는 무대 뒤편에 있는 필란트로피스트들을 APA 청년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마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대 뒤편에서, 무대 앞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화했다. 한 명이라도 더 이들을 알아준다면, 무대에서 빛나고 있음을 알아차려준다면, 그리고 박수를 힘껏 쳐준다면 세상이라는 무대가 훨씬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고, 절망과 비난보다는 희망과 따뜻함을 선물해줄 수 있으며, 상처의 악순환이 아닌 사랑과 나눔의 선순환이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APA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그들과 조금 더 닮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APA 서포터즈로 활동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어쩌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조명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조금의 관심과 발굴만으로도, 눈부시게 빛날 수 있는 것이다. APA 서포터즈는 세상을 더욱더 밝고, 따뜻하게 비출 수 있도록 미처 발견하지 못한 조명들을 환하게 켜는 활동이다. 그렇게 조명을 하나 둘 마주하다 보면, 스스로도 그 빛을 닮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APA를 돌아보다

이연우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작년 9월 말 시작하여 장장 6개월을 달려온 서포터즈 활동이 끝났다. 사실 활동을 시작한 직후의 나는 필란트로피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다. 서포터즈 공고문을 본 후 APA의 홈페이지에서 소개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필란트로피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그 후 진행된 모임 때 김현수 선생님께서 필란트로피의 깊은 의미를 알려주셨고, 이제는 필란트로피라는 단어가 내게 무언가 말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었다. 그저 사회문제 해결, 공익 활동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지원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소셜 섹터에서의 첫 발걸음을 APA에서 뒀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있다.

활동을 하기 전에는 소셜 섹터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었다. 사회공헌에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그 행위들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었다. APA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경험들이 나를 변화하게 만들어주었다. 매 모임 마다 어디서든 들을 수 없는 필란트로피 관련 강의를 진행 해주셨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에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그 중 가장 감사한 일은, 실제로 소셜 섹터에 몸 담고 계시는 실무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분들은 나에게 이 분야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고, 앞으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내가 걷고 싶은 길을 위한 아주 감사한 이정표들이었다. 또 하나 좋았던 부분을 말해보자면, 내가 직접 필란트로피스트들을 찾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행동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나와 같은 청년들이 직접 행동하고, 그를 통해 세상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 많이 어리고 부족하지만, 혼자가 아닌 여럿이라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제 나는 APA 활동을 끝마치게 되었지만 또 다른 사회적 움직임에 동참할 것이다. APA는 나에게 확신을 주었고, 앞으로 나는 그 확신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주춤하는 이들이 있다면, APA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 가길 바란다.

이지윤

-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APA(Asia Philanthropy Awards)에서 청년 서포터즈 기자단 1기 기자로 활동하며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필란트로피 정신을 실천하는 분들을 발굴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필란트로피'가 어떤 것인지, 우리 주변에 필란트로피 정신을 실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자단 활동 이전에는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필란트로피 정신을 실천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하고, 각자 저마다의 가치관들이 모여서 더 다채로운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기존에 공부하고 있던 분야는 사회혁신 분야였는데, 사회혁신의 근본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을 필란트로피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보다 확장된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활동이 다 너무 좋았지만, 우선 저는 후보 발굴 기간에 내가 추천한 필란트로피스트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 인터뷰를 하며 필란트로피의 범주가 무척 넓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고, 동시에 그만큼 다양한 실천 방식을 필란트로피 정신 내에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발굴했던 필란트로피스트 후보는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이 겪는 문제에 대해 게임, VR산업과 접목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셜벤처였는데, 보다 모두가 함께 즐겁게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강화도 우리마을에서 김성수 주교님을 만났던 활동 역시 기억에 남는다. 다같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조금 배우는 게 느낄 뿐인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걷고 계신 중이라 느껴졌고, 이것 역시 또다른 필란트로피라고 생각했다. 그 외 모든 미팅마다 매번 필란트로피에 대해서, 혹은 또다른 주제나 저희가 가진 고민들에 대해서 좋은 분들과 좋은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걸음을 나아가고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다. 아직 2월 APA 셉템 필란트로피스트 관련 활동이 남아있는데 마저 잘 진행하고 싶고, 2019-2학기에도 가능하다면 다시 참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전미성

-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콘텐츠전공

어느덧 벌써 APA 청년 서포터즈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처음에는 그저 사회공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지원했는데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다양한 필란트로피스트를 알게 되어서 행복했다.

우리는 서포터즈단으로서, APA(아시아 필란트로피어워드)를 위한 필란트로피스트 발굴 작업을 사무국 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아시아에 있는 사회공헌을 위해 힘쓰는 분들을 리서치하고, 필요하다면 인터뷰까지 진행하는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려웠다. 막연하게 숨은 필란트로피스트를 찾아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작업이 재미있고 보람찼다.

나는 장애인 복지, 다문화 가정 등에 관심이 많아서 이와 관련해서 힘을 보태고 계시는 분들을 발굴해냈다. 이렇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필란트로피스트를 APA 서포터즈단으로서 직접 만날 수도 있다는 게 가장 좋았다.

그분들의 업적을 살펴보면 아직도 아시아에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위해 나눔과 사랑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발굴 뿐만 아니라 APA사무국에서 필란트로피스트의 개념과 다양한 이야기를 강연식으로 전달 해주신 것도 기억에 남는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강연, 교육 등을 통해 채워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또한 단순히 서포터즈단으로서 무언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의견에 귀 기울여 주셨다. 또 부족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해결해주려고 같이 힘써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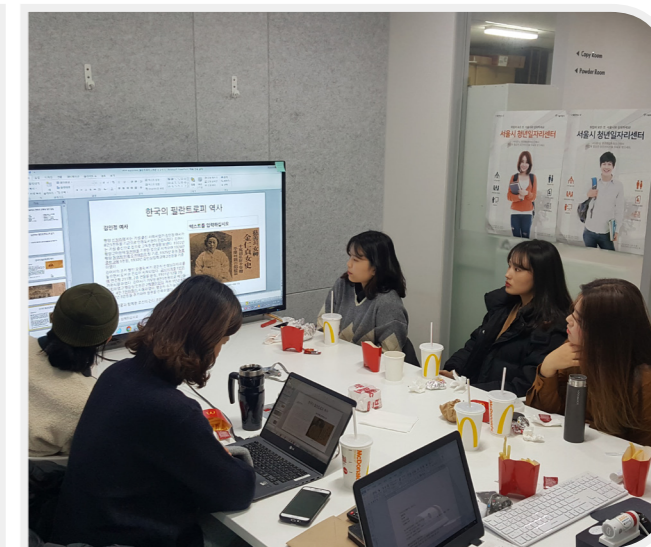
어쩌면 발굴작업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게 바로 APA 사무국분들이다. 인생에 있어 좋은 멘토를 만난 것 같아 좋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회공헌과 문화예술을 융합하여 사회적 기업을 세우고 싶다는 작은 꿈이 있었는데, 사회공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숨어있는 필란트로피스트분들을 발굴하고 만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공부가 되고 자극이 되었다.

그분들의 공적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을 엿보면서, 나눔과 박애주의 정신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요즘, 그 답을 서포터즈를 통해 찾은 것 같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APA 사무국 분들 감사합니다!

아시아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분이 나눔의 행보를 이어가길 바라고, APA가 더욱 성장해서 명예로운 분들을 위해 힘쓰면서 우리 모두에게 나눔과 박애주의 정신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 :)



▶ 2019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APA 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대한성공회 주교 강화 우리마을 촌장
부위원장	
이종수	IFK임팩트금융 대표
이진수	국립암센터 명예교수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Maung Zaw	Thabyae CEO, 2016 올해의 필란트로피스트 부문 수상자, Myanmar
Gwendolyn Pang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China
Masataka Uo	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CEO, Japan
J.R. Pangilinan	
Rewati Raman Dhakal	World Scout AP Regional Director, Philippines
Usha Menon	Founder and CEO of NCPD, Nepal Management Consultancy (Asia) Executive Chairman, Singapore
Penelope Cagney	The Cagney Company President & CEO, USA
위원	
강학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 사무처장
고 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이사장
김경식	한국스카우트연맹 국장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영욱	올마이키즈 이사장
김영후	휴먼인러브 이사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대표 상임이사
김현수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본부장
박상규	(주)아카데미라운지 대표
박용주	(주)지비스타일 대표이사
박종호	기아대책 본부장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비케이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
손미정	예술의전당 차장
염진수	사단법인 더나은세상 이사장
이광재	따뜻한동행 상임이사, 2015 올해의 펀드레이저 부문 수상자

이동수	상명대학교 교수
이상호	광주희망재단 이사장
이승훈	을지대학교의과대학 학장
이지수	AAPBS Associate Director
이현우	한양대학교 교수
장 건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정인조	(사)부천희망재단 이사장
정중국	안성시 노인복지관 관장
조하정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팀장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최재원	서울아산병원 대외협력실장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이사

심사위원장단

위원장 김성수 대한성공회 주교, 강화 우리마을 촌장

부문별 심사위원장

부문	심사위원장	부위원장
필란트로피스트	정인조	손미정
펀드레이저	김현수	박종호
NPO	이광재	김효진
청소년 필란트로피스트	최영준	이지수
공적상	박용주	이현우

기금후원

강학봉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경식	한국스카우트연맹 국장
김도현	뿌리의집 대표
김범용	부천희망재단 상임이사
김소희	2015 청소년 필란트로피스트 부문 수상자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대표상임이사
김하중	안나의집 신부
김현수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김현일	디스에이블드 대표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영경	민들레유치원 원장
박영대	올마이키즈
박태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배석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부장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비케이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
손미정	예술의전당 차장

이경란	모든커뮤니케이션 대표
이광재	따뜻한동행 상임이사
이동한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이지수	AAPBS Associate Director
정인조	부천희망재단 이사장
조하정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팀장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카카오 직접기부 49명
카카오 참여기부(응원, 공유, 댓글 기부) 5,666명
(2019.4.17.까지의 후원자 명단입니다.)

현물 / 공간후원

5주년 컵 및 에코백 후원	모든커뮤니케이션 이경란 대표
보조배터리 후원	김현일 디스에이블드 대표
도서 후원	이종수 IFK 임팩트금융 비케이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
공간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컬처오픈코리아, 카페모아
청년 서포터즈	박용주 (주)GB STYLE 대표이사, 강화 우리마을

사무국 STAFFS

사무국장	조하정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팀장
행정팀장	김세순 여명학교 후원관리팀 간사
간사	이수정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과장
간사	김채영 KSoP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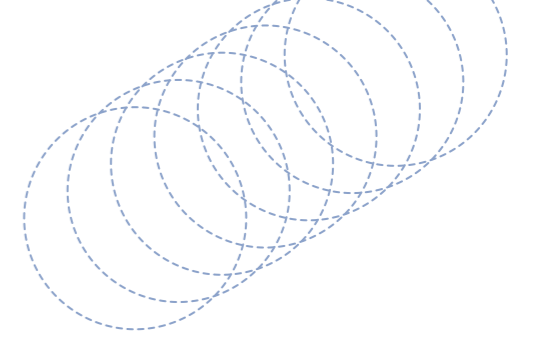
APA 준비를 위한 재능기부 / 자원봉사자

강 연	이종수 IFK 임팩트금융 대표 이경란 모든커뮤니케이션 대표 비케이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 김영걸 KAIST 교수 김현수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영어 번역	심재익, 조성찬, 박정현, 강수진, 윤소영, 김가연
뉴스레터 제작 및 홍보	정빛나 더 브릿지 컨설턴트
SNS 홍보	김현일 디스에이블드 대표, 박지영 JTBC 인턴, 추대영 펀브릿지 대표, 이상미
홈페이지 유지관리	Rothem 로템
APA 모금 기획	김현수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이광재 따뜻한동행 상임이사

APA 같이가치 응원 영상	가수 청하, 가수 남태현
후보자 발굴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이현우 교수, 김상엽 학생, 박성범 학생)
2019 APA 청년서포터즈	김진주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민예린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이연우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지윤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전미성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콘텐츠 전공, 한혜진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섭 외	기아대책, 뷰어스
APA 기획 및 디자인, 영상 시상식 기획 연출 및 운영	모든 커뮤니케이션 홍구기획(로고)

시상식 행사 자원봉사자

포럼/시상식	사회 박재홍 CBS 아나운서
시상식 사회	Jacquelyn Kim 더나은세상
통역지원	김소희, 이지수 AAPBS Associate Director, 송서현, 이연우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 민예린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행사지원	더나은세상(Rebecca (June) Alphonse, Alexandra (Alix) Cardwell, Josh Gilchrist, McKenzie Hooper, Harmony Lanham, Shada Malone, Jenna Ogawa, Emma Potts, Hunter Slingbaum, Katie Stahnke, William (Liam) Warren, 박주영, 손소영), 모든 커뮤니케이션(윤동석, 최우리, 김승연, 김선희, 류보람, 정희수, 이주연, 전아영, 오태성)
영상촬영	모든 커뮤니케이션(남상득 감독, 김경무 조감독, 이화평 PD, 윤이나 작가)
사진촬영	모든 커뮤니케이션(한상우 실장)



| 2018 포럼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 2018 포럼 나성식 전 스마일재단 이사장
 | 2019 포럼 김영걸 KAIST 교수



부록

포럼 강연문

2018

포럼 "내 인생의 필란트로피"



전수안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전 대법관), APA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들어오면서부터 어디선가 향기가 나는 듯 했습니다. 둘러보고 또 둘러보아도 라일락도, 야카시아도 없었는데도 아, 역시 사람이 꽃보다 향기로운가 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수상자와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꽃이 없어도 향기가 득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명성으로만 듣던 존경하는 분들과 반가운 얼굴들을 뵈게 되어 또한 기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세상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시비와 이해가 그것이다. 옳은 일을 해서 이롭게 되는 것이 가장 좋고, 옳은 일을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그 다음이다. 그런 일을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세 번째고, 그런 일을 하다가 해를 보는 것은 네 번째다. 첫 번째는 드물고 두 번째는 싫어서 세 번째를 하려다 네 번째가 되고 마는 것이 세상 일이다". 옳은 일을 해서 이롭게 되기는 드물고 손해 보기는 싫어서 그런 일로 이익을 피하다가 해를 보고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실험파인 다산도 잘 몰랐던 것은 최근의 의학지식인데,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7년의 수명연장 효과가 있다네요.

좋은 일을 하면 오래 산다는 것은 가볍게 드린 말씀이지만, 과연 옳은 일, 좋은 일을 하면 이롭게 되기보다 손해를 보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PA에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제가 이런 저런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눈뜨게 된 것은 제가 법관으로서 형사재판을 맡게 되면서였습니다.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애원할 때 칼을 거두느냐 그대로 내리꽂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피고인의 마음을 돌릴 수도, 모질게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살아오는 동안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는 각성이 들었던 것입니다. 끼니조차 없는 막대한 처지에 몰려 간절히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않고 무심하던 이웃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너희는 언제 한 번이라도 내 애원을 들어준 적이 있느냐 라고 절규하는 듯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흉악범의 얼굴이 슬프게 보이고, 바라보는 우리 얼굴이 더 서늘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칼을 들어 절규하고 몸부림치는 대신,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밀린 집세를 미안해하며 집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까지 남깁니다. 4년 전 자살한 세 모녀가 남긴 편지에는 밀린 집세와 공과금으로 70만원밖에 남기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죄송해야 할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인데도 말입니다. 남에게 직접 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가 없을까요. '내가 온전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로입니다. 지켜보는 마음이 평온치 못해서입니다. 이익이란 돈 권력 지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나의 이익은 마음의 평화 아닐까요.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데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아마 7년쯤의 수명감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남을 해치든 자신을 해치든 그것은 분명하게 표현된 것이잖아요. 이와 달리 아무런 내색을 았다가 문득문득 불쑥불쑥 스며 나오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돌출 행동, 집단적 혐오나 광기 등이 그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결국은 표출되는 것이지요. 잠재되어 있을 뿐 당연히 예견된 것입니다. 이념적·정치적 분열과 대립으로 보이는 갈등의 이면에는 이런 부분도 얼마만큼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장황해졌으나, 제가 이해하는 공익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 아이가 잘 자라려면 이웃집 아이가 원한을 품거나 마음이 얼어붙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웃의 이익을 살피지 않으면 나와 가족의 생명, 재산,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공익 활동이나 비영리 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며, 나를 이롭게 하는 일에 다름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투자이자, 시민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든든한 보험입니다. 지난 16일 세월호 4주기를 기억한 것은 내 아이에게 그런 참사가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며, 지난 20일을 장애인 날로 정한 것은 언제라도 내가 장애인일 수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지만 충분치 못할 때로부터, 아니 나라도 나서야 한다는 것. 필란트로피는 바로 그러한 나, 그래야만 하는 우리가 모인 곳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을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 확장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 보편적 행복을 지향하는 세계 시민의 연대입니다. 아시아

필란트로피는 인류애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전통인 상부상조 정신과 기부문화 화를 되살리고 퍼뜨리기 위해 모인 조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는 비영리 부문의 숨은 지도자를 발굴하고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구요.

그 수상자의 면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사회 각 분야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실제로 그런 인물이 드물어서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그런 인물을 갖고자 하는 뜻이 없어서 아닐까.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를 더 존경받는 인물로 인정하는 것은 썩 내키지 않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말을 믿기보다 저의를 의심하고, 경청하기보다 귀를 막고, 수긍하기보다 반발하는 것에 익숙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대중매체 속의 아이돌은 있어도 내 마음의 영웅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 있는 우리 시대의 영웅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나 역사 속의 안중근, 천당과 극락에 계신 스님과 추기경만 그리워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웃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현실의 인물이 청소년들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가슴을 넓혀줘 한다면, 그보다 더 효과적인 인성교육, 가치교육이 어디 있었어요.

오늘 필란트로피 상을 받으시는 노숙인의 대부 김하중 신부님, 조각보의 김숙임 이사장, 월드비전의 김이경 차장, 장애극복의 상징 이동한 이사장, 네팔의 아름다운 가게 수커워티 재단, 홍콩의 깨어있는 청년 아이들 마켓 이분들과 그 단체가, 우리가 그런 인물로 삼기에 충분한 분들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충분합니까. 예,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얼마 전 '러빙 빈센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셨는지요. 빈센트 반 고흐의 소박한 희망은 이랬습니다. "나는 내 예술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싶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바란다. 마음이 깊은 사람이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수상자들에게서 받는 느낌도 바로 그렇습니다. 마음이 깊은 분들이구나.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구나. 미처 다 알려지지 않은 수상자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는 일, 그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가 감당할 몫이겠습니다.

불행히도 근래 우리 사회가 겪은 일련의 사건은, 인생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영혼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일을 성공의 지표로 삼고 살아 온 우리들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병이 깊어 야 병원에 가고 의사는 굵아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병은 끊임없이 생기고 의사는 설새없이 치료하였으며 병원도 의사가 늘었지만, 약과 수술은 재발을 막지 못했고 병도 약도 더 독해졌습니다. 최신 의학은 어떻습니까. 병의 예방과 면역의 균형에 주력합니다. 효과적이므로 옳은 방법입니다. 사회와 지구의 병에도 수술보다 예방을 위해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인권과 평화의 문제를 넘어 환경과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전단계인 인권과 평화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어서, 전쟁과 평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정의 문제는 여전히 현안입니다. 그보다 전단계로는 산업화와 경제 개발을 거치면서 생존과 빈곤, 소득과 분배가 과

제였습니다. 그 또한 해결하지 못한 나라가 많아서 굶주림과 노동 착취,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또한 여전한입니다. 이렇게 지구촌 전체로 보면 기후 변화와 생태계의 보전, 생명 존중의 단계로 진입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낮은 수준의 인권 문제에 머물러 있는 지역이 있고 빈곤과 착취, 가족 붕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OECD 회원국 수준에 맞추어 환경과 생명의 문제를 말하고 있기는 하나 남북의 평화와 인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빈곤과 노동 착취 등의 생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건국 후 벌써 70년이 넘었지만, 이제 겨우 70여 년이기도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 사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했을까. 크게 변했는가라고 물으면 아니다 가 답이 될 것입니다. 변한 게 없는가 라고 물으면, 변한 건 변했다 가 답이 될 것입니다. 기대만큼 변했는가 라고 물으면, 얼마만큼 기대했는가 라고 되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한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대만큼 변한 것은 아니다 정도면 정답에 가까울까요?

인권운동가 데니스 마샬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나는 이 사회가 70년대 이후 얼마나 달라졌나, 진보하기는 했나 싶어 절망하고 한다". 그렇게 말할 시점과 배경이 2014년의 영국 사회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 링컨 기념관 앞에서의 그 유명한 연설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노예해방선언 이후 100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게 없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인종 문제는 조금 나아졌을뿐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는 나라에서도 이렇진대, 우리 쉽사리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자는 다짐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촛불집회 이후의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일이 다음 언젠가에 변하리라는 전망은, 사실 불확실하고 낙관적인 희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불확실한 희망일지라도 우리 힘으로 기어올라 이루어내자는 디딤만큼은, 아시아 필란트로피와 함께 하는 우리의 약속이자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누군가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 모두 필란트로피스트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측하는 것은 지식이지만, 예측을 비껴가는 것은 지혜라면서요. 지식은 2300~2400년이면 한국의 인구가 소멸하고 경제성장률이 0에 이른다고 예측하지만, 그러한 예측을 비껴가는 것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모색하는 사람이 바로 필란트로피스트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필란트로피의 꿈도 언젠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설레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오늘의 이 자리가 서로의 가슴에 작은 불씨로 남아, 가슴 시리고 허전한 모든 사람들에게 따스하게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 가치 실현에 헌신해 오신 올해의 필란트로피스트, 올해의 여성 필란트로피스트, 올해의 펀드레이저, 올해의 공적상, 올해의 NPO, 올해의 청소년 필란트로피스트 수상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대회를 준비하신 모든 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포럼 "내 인생의 필란트로피"



나성식 | 스마일재단 명예이사장

저는 지난 해 NPO 부문에 수상의 영광을 함께한 스마일재단의 명예 이사장 나성식입니다. 수상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날의 감격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스마일 재단이 있기 때문에 구강건강은 그래도 안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270만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더불어 발전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입니다. 인식개선사업은 몇 사람의 관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운 사업이지만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APA와 같은 뜻있는 단체의 시상제도는 관련 부문의 관심을 국민과 함께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장애인의 구강 관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치과치료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지고, 장애 자체 및 장애로 인한 구강보건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강질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강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구강보건관리와 교육을 통한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은 장애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여 실시하며, 장애인의 구강보건관리는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구강건강교육 대상은 일부의 장애인 스스로 관리능력이 있는 그룹과 대다수의 부모나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부모 및 보호자의 선행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장애인 부모나 보호자의 구강보건교육선행 교육은 장애인 구강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정보 활용 능력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비해 아주 많은 시간과 정성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적절한 교육 방법과 매체를 사용하여 설득력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 구강보건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구강병 예방으로 치과치료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계속구강보건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구강건강증진 및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강보건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 전에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현장의 환경과 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받을 곳의 시설을 잘 활용하여 교육의 친밀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원활하고 정확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교육자의 훈련을 실시한 후 숙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동일한 교육자가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교육자인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매체를 개발하여 장애인과의 신뢰와 친밀성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협조와 각 분야의 관련된 종사자 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구강건강관리의 기본인 칫솔질의 중요성과 정확한 방법의 보급이 요구됩니다. 칫솔질 교육 시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화장실의 개수대를 이용하고, 이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교실 또는 진료실 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약 선택 시 소아용 치약은 달콤한 맛과 향이 성인용 치약보다 강한 편이어서 이런 소아용 치약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맛과 향이 약한 성인용 치약을 사용함으로써 거부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치약의 맛과 향에 강한 거부감을 보일 경우에는 칫솔만 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칫솔질 후에는 반드시 치면세균막 제거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도 확인시켜 일상적인 칫솔질 시에 관심을 갖고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아동이 혼자 힘으로 치면 세균막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교육자가 직접 닦아주어야 합니다.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구강보건의 필요성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

포럼 "필란트로피 ~ing"



김영걸 | KAIST 교수

1. Philanthropy starts with WATCHING

필란트로피는 라틴어로 사랑한다는 "필"과 사람이라는 "안트로프"가 합쳐져서 "사람 또는 인류를 사랑하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구 상에는 인종과 문화와 환경이 다른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이 중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필란트로피의 기본을 watching, touching, catching이란 세 가지의 키워드로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watching부터 시작하지요. 필란트로피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watching 즉, "관찰"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 어느 겨울 아침 유학을 준비하던 최일도 목사는 청량리역 광장에 누워 있던 한 노숙자 할아버지를 보았지만 기차 시간도 급하고 해서 그냥 지나쳐 강원도 춘천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내내 그 자리에 누워계신 모습을 보고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0년 간 이어진 노숙자 대상 밥퍼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할아버지를 눈으로 보았는데 저녁 때는 마음으로 본 것이지요.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남을 도우면 도울수록 강해지는 것 아닐까요?

필란트로피스트의 관찰은 도움 대상을 발견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기 원하는 지까지도 살펴야 하니까요. 1999년 12월 31일 한해의 마지막 날 저희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교수, 직원, 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자선바자 수익금으로 겨울 파카 600벌을 사서 청량리 밥퍼본부의 노숙자분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새 파카면 원하는 색상이나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기쁘게 받아갈 줄 알았던 저희들은 그날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정 색상, 특정 사이즈만 원하시고 그게 아니면 아예 저희 선물을 필요 없다고 거부하셨거든

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라고 자신만의 니즈나 취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사랑을 나누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Philanthropy starts with WATCHING!

2. Philanthropy grows with TOUCHING

다음 키워드는 touching입니다. 세상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금전문가나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NGO, NPO단체들에도 이런 모금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이 평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아의 고통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서는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서든 막상 남에게서 기부 유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적십자사의 헌혈캠페인을 예로 들어 볼까요?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근처에 적십자사의 헌혈버스들이 주차되어 있고 하얀 가운에 빨간 휘장을 두른 분들이 직장이나 학교로 분주히 이동중인 시민들에게 헌혈을 권합니다. 헌혈자가 부족하면 가끔 따라와 소매자락을 붙잡고 권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헌혈 버스로 들어가시나요? 그런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헌혈을 하는 사람이지만 아침 출근 길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헌혈하다가 지각하면 안 되니까요 ^^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6년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미국 공군사관학교까지 입학하였으나 만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골수를 이식해줄 기증자를 찾아 한국에 왔던 성덕 바우만이라는 청년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KBS의 성덕바우만 방송을 본 우리 국민들 중에 무려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혈액골수검사를 받았습니. 사관생도들은 단체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적십자 헌혈버스하고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전자는 Push, 후자는 Pull 방식의 기부유도 라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가 소매를 붙잡고 돈이든 혈액이든 기부를 강요하면 외면하게 되지요, 하지만 성덕 바우만 경우처럼 방송을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든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면 누구든지 스스로 기부하려 나서게 됩니다.

저는 2013년부터 국내 NGO인 기아대책에서 청소년들의 리더십을 키워주기 위한 한통청소년봉사단을 만들어 단장으로 섬겼습니다. 1년 간의 활동기간 중 매년 4월이면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성라자로 마을을 방문하여 그곳에 사시는 한센병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다과도 전달해 드리고 공연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째 저희가 방문하였을 때 한센병 환자를 처음 접한 저희 단원들이 겁이 나서인지 가지고 간 다과접시를 할아버지 할아버지 무릎 위에 내려놓고는 그분들 얼굴도 한번 보지 않은 채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분들 표정이 굳어지시더군요. 저는 즉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다가가서 한분 한분씩 두손을 꼭잡고 저희들을 위해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린 친구들이 정성껏 준비한 공연이니 즐겁게 봐 주십시오고 부탁 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굳은 얼굴이 조금씩 펴지고 저희 단원들의 공연을 끝까지 즐겁게 봐 주셨습

니다. 그날 다과 나눠드린 후 바로 공연으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분위기 엄청 썰렁했을 것 같습니다.

기부자들의 기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기부자들의 마음을 건드려야 하듯이 기부자들의 사랑을 전달받는 수혜자들에게도 그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아가 어루만져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란트로피는 기부자들과 수혜자들의 마음을 건드리면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Philanthropy grows with TOUCHING! ^^

3. Philanthropy matures with CATCHING

마지막 세번째 키워드는 catching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필란트로피 스토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든 비영리 NPO에서든 한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고 또 큰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지요. 성숙한, 그리고 성공적인 필란트로피는 한 사람의 작은 시도와 열정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거대한 나비효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의 열정이 청량리 밥퍼를 만들었고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님의 뜻을 따라 살례시오 수도회는 남수단 지역에 100개의 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계획이지요. 또 방송에서 아프리카 마을들의 식수난을 접한 노국자할머니께서는 본인이 직접 동네 폐지를 수집하여 판 돈과 주변 이웃, 교회 분들을 설득하여 모금한 돈으로 지난 13년 간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들에 무려 25개의 우물을 파셨습니다. 저도 노국자 권사님의 강연을 듣자마자 노권사님 팬이 되었고 제게 주신 명함에 나와있는 아프리카 우물파기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인의 필란트로피가 우리 모두의 필란트로피로 확산되면 어떤 과정이나 노력이 필요할까요? 즉 필란트로피 확산의 촉매는 무엇 일까요? 저는 세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레이트 스토리입니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 하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진리를 이야기 하라. 그러면 배울 것이다.
스토리를 이야기 하라. 마음 속에 평생 간직할 것이다."

스토리의 힘은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밥퍼의 스토리, 울지마 톤즈의 스토리, 우물할머니의 스토리 모두 한번 들으면 마음 속에 꽃혀서 잊으려 해도 잊기가 어렵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필란트로피 활동을 하시던 그 활동에서 여러 분에게 감동을 주었던 스토리들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비효과를 위한 두번째 촉매는 동영상과 SNS입니다. 과거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여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지요. 하지만 요즘은 "백사가 불여일비"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즉 백장의 사진이 한 개의 감동적인 비디오 보다 못하다는 것이지요.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SNS덕분에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감동적

인 영상 콘텐츠를 만들거나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5년 전 기아대책에서 만든 "리더의 생명"이라는 동영상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1분 54초짜리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무려 120만번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자 국내 유명 생수회사에서 함께 나눔프로젝트 진행하자고 바로 제안이 들어오더군요.

필란트로피 확산을 위하여 제가 소개드릴 마지막 촉매는 마중물입니다. 우물에서 처음 물을 길 때에 먼저 마중물을 조금 부은 뒤에 본격적으로 펌프질을 시작하지요. 캠페인 모금이든 고액 후원자그룹의 결성이든 필란트로피 활동의 확산에도 마중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디엔가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하면 저절로 그쪽으로 시선이 때로는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던가요? 인터넷 사용자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기사들을 많이 검색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대상에 끌리게 되어 있지요.

여러 분이 멋진 필란트로피 아이디어가 있어서 관련된 캠페인을 시작하신다면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이번 캠페인의 마중물 역할은 누가 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아대책에서는 4년 전 유산기부 약정을 위해 헤리티지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마중물은 당시 85세이셨던 저희 어머니 설순희여사였습니다. 헤리티지 1호였던 저희 어머니가 예상치 못했던 뇌출혈로 다음 해 돌아가시게 되자 그 스토리를 접한 다른 후원자분들의 추가 가입이 이어졌고 현재 기아대책 헤리티지 클럽에는 13명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 헤리티지 클럽 가입을 권유해 드린 것이 제가 평생 어머니께 드린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리티지 클럽보다 1년 전 시작한 필란트로피클럽은 1억원 이상 고액후원이나 후원약정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고액후원자 커뮤니티입니다. 이 필란트로피 클럽의 마중물은 누구였을까요? 제 1호는 노국자권사님, 2호는 저, 그리고 4호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매주 5천개의 빵을 수년간 보내주시는 베어베터 김정호 대표가, 5호는 소망화장품 창업주이자 기아대책의 오랜 후원자이신 강석창 대표가 맡아 주셨습니다. 이런 마중물 효과인지 필란트로피 클럽은 4년 만에 120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스피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군요. 세가지 키워드를 복습해볼까요?

Philanthropy starts with WATCHING.
늘 마음의 눈으로 주변을 잘 관찰하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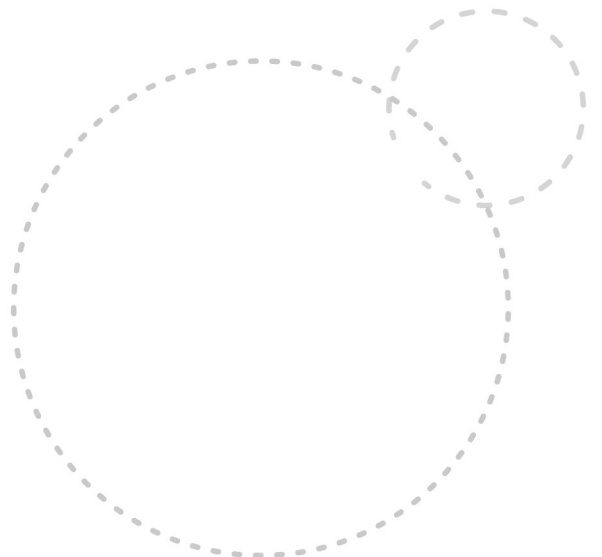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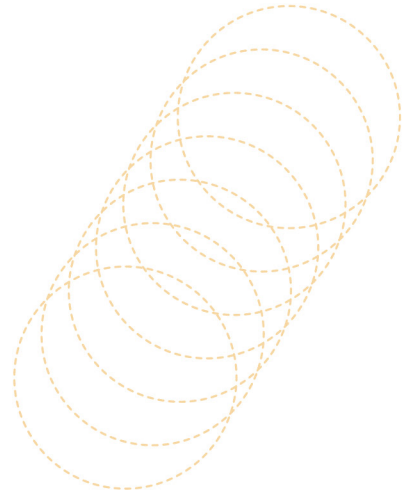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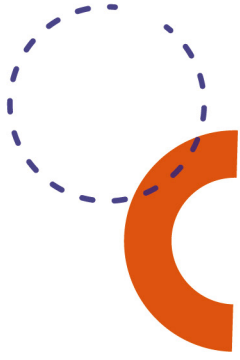
Philanthropy grows with TOUCHING.
기부자와 수혜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Philanthropy matures with CATCHING.
나의 사랑을 세상 구석구석 전파하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PA 5주년 백서
1825일의 기록

발행일	2019년 4월 24일
발행인	김성수
발행처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 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플래티넘타워 6층, 623호
	E-mail asiaward@gmail.com
	Web apawards.org
기획 · 디자인	모든커뮤니케이션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 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플래티넘타워 6층, 623호

E-mail | asiapaward@gmail.com Web | apawards.org